

컨슈머인사이트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

2024. 01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국내외 여행 생태계와 여행소비자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첫째



현재의 국내외여행 소비자 행태를
월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여행 시장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코로나 이전(2019년)의 상황과
월 단위로 그 결과를 비교해
여행 시장의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셋째



현상 평가와 과거대비 자료 분석을 통해
다가올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격변하는 여행 소비자 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적응과 예측을 도와
여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국내·해외 여행 동향 요약

요약

국내외 여행의 ▲지난 1년간의 변화 ▲코로나 이전 대비 현 상황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현황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7.0%로 '23년 9월 이후 감소세임. ▶ 여행 평균기간은 2.06박, 1인 당 총 경비는 23.3만원, 1일당은 7.6만원임. ▶ '호텔'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펜션', '가족/친구 집'은 소폭 하락함.	현황 ▶ 1월 해외여행 경험률(지난 6개월내)은 31.3%로 최근 3개월 간 큰 변화 없음. ▶ 해외여행의 평균기간은 5.58박, 1인 당 총 경비는 181.1만원, 1일 당 경비는 27.5만원임. ▶ 해외 여행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 점유율이 80.3%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함.
코로나 이전 대비 ▶ 여행 기간의 TCI는 106, 1인 당 총 경비는 116, 1일당 경비는 112로 코로나 이전보다 기간이 더 길고 비용 지출도 더 많아짐. ▶ '호텔' TCI는 124로 이용률이 코로나 전보다 늘어난 반면, '펜션(69)' 이용률은 크게 낮아짐.	코로나 이전 대비 ▶ 해외여행 기간의 TCI는 109로 다소 늘었고, 1인 당 총 경비(128)와 1일당 경비(119)도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늘어남. ▶ '아시아' 지역 점유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133)', '태국(133)', '필리핀(117)'의 방문율이 크게 증가함.
전망 ▶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67.1%로 국내 여행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국내여행 비용을 '더 쓸 것'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비용 절감 의사는 여전히 큼. ▶ 상대적으로 여성과 60대 이상의 '더 쓸 것' 응답률이 높아 국내여행 시장의 '여성화', '실버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전망 ▶ 해외여행 계획률(향후 6개월)의 점진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향후 해외여행 비용을 '더 쓸 것'은 감소, '덜 쓸 것'은 증가하여, 실제 지출 비용과 달리 지출 의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여행 쏠림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4년 1월 이달의 토평 : 해외여행, 왜 일본으로 몰려가는가?

	여행실태							여행 계획		
	여행 경험률	기간	1인 당 총 비용	일 평균 비용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숙박	여행 계획률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국내여행	67.0% (지난 3개월)	2.06(박)	23.3(만원)	7.6(만원)	🏆 경상권 27.8%	🏆 자연풍경감상 22.7%	🏆 호텔 30.3%	67.1% (향후 3개월)	🏆 경상권 25.8%	🏆 자연풍경감상 24.2%
TCI	102	106	116▲	112▲	99	106	124▲	100	95	91
해외여행	31.3% (지난 6개월)	5.58(박)	181.1(만원)	27.5(만원)	🏆 아시아 80.3%	-	-	47.1% (향후 6개월)	🏆 아시아 75.8%	-
TCI	75▽	109	128▲	119▲	104			86▽	103	

* TCI(Travel Corona Index 여행 코로나 지수)는 2024년 당월 결과값을 '코로나 발생 전년(19년) 동월 결과값'으로 나눈 수치임
: (2024년 1월 결과) / (2019년 1월 결과) * 100
** ▲▽는 TCI(여행 코로나 지수) 100 대비 ±10 이상인 수치임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 해당 자료는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 8월 부터 매주 시행하고 있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기초로 함.

모집단

표본추출 틀

표본규모

표본추출 방법

자료수집 방법

표본의 구성(할당)

조사기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컨슈머인사이트 86만 온라인 비편향 패널
- 매주 500명 (연간 누적 26,000명, 3개월 내 동일응답자 참여 불가)
- 성X연령 및 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Online/Mobile -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1월 전체		(2,500)	100.0
성별	남성	(1,271)	50.9
	여성	(1,229)	49.1
연령대	20대	(419)	16.7
	30대	(444)	17.8
	40대	(535)	21.4
	50대	(587)	23.5
	60대 이상	(515)	20.6
성BY 연령대	남성 20대	(219)	8.8
	남성 30대	(230)	9.2
	남성 40대	(270)	10.8
	남성 50대	(296)	11.8
	남성 60세 이상	(256)	10.2
	여성 20대	(199)	8.0
	여성 30대	(214)	8.6
	여성 40대	(265)	10.6
	여성 50대	(291)	11.6
	여성 60세 이상	(260)	10.4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결혼 여부	미혼	(821)	32.8
	기혼	(1,562)	62.5
	기타	(117)	4.7
가구 상황	미혼	(821)	32.8
	신혼기(자녀 없음)	(152)	6.1
	자녀 유아&성장 (막내 입학 전~초등생)	(445)	17.8
	자녀 성장(막내 중고생)	(201)	8.1
	자녀 성인(막내 대학)	(671)	26.8
	자녀 독립(막내 결혼)	(210)	8.4
가구 월소득 (모름 제외)	300만원 미만	(300)	12.8
	300~500만원 미만	(662)	28.3
	500~700만원 미만	(656)	28.0
	700만원 이상	(724)	30.9

- 매주 '월요일~일요일' 자료 수집 : 연중 무휴(연 52주)

[참고] 휴일 달력

I. 조사 개요

6 / 40

2023년 12월 (전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2024년 1월 (당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1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2024년 2월 (익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설날
11	12 대체 휴일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2

2023년 1월 (전년 동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설날	23	24 대체 휴일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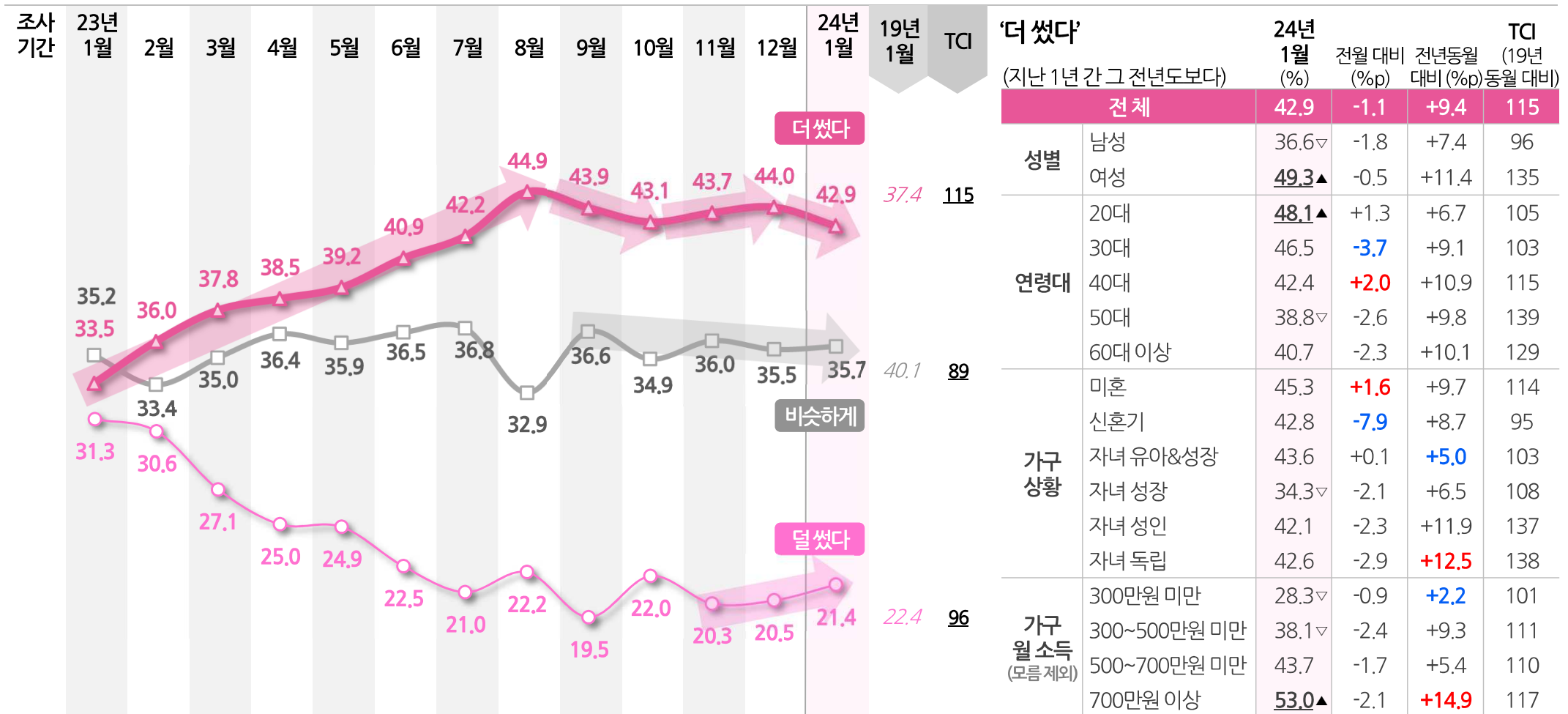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여행비 지출 동향 (지난1년)

- 지난 1년간 관광·여행비를 그 전년도에 비해 ‘더 썼다’는 ’23년 9월 이후 큰 변동 없으나, TCI는 115로 ’19년 1월 대비 높음.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20대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더 썼다’ 응답이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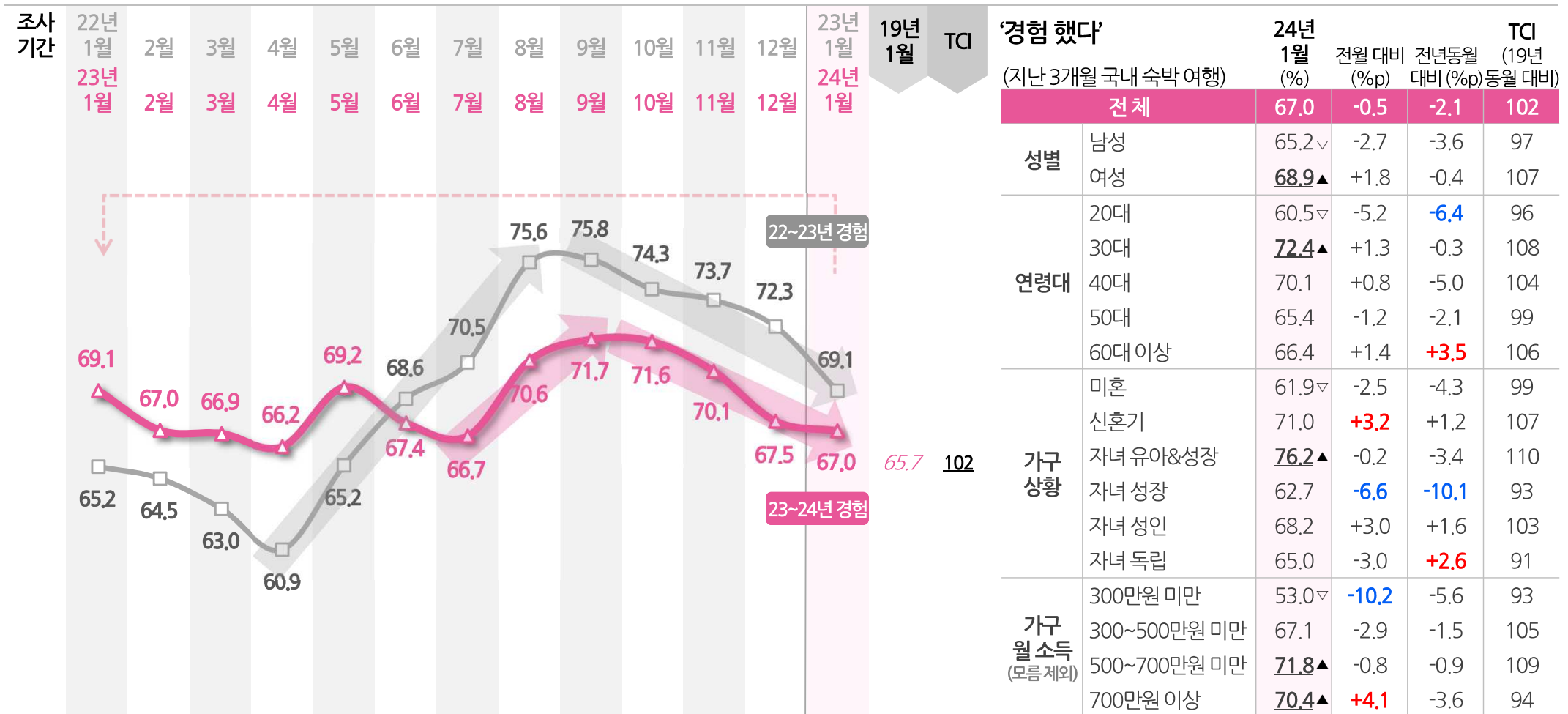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해외 합하여 관광·여행비로 쓴 비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됩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지난 3개월)

- 지난 3개월 간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7.0%로 '23년 9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TCI는 102로 코로나 이전 동월(65.7%)과 거의 같음.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30대 △자녀 유아&성장기 △가구 월 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경험률이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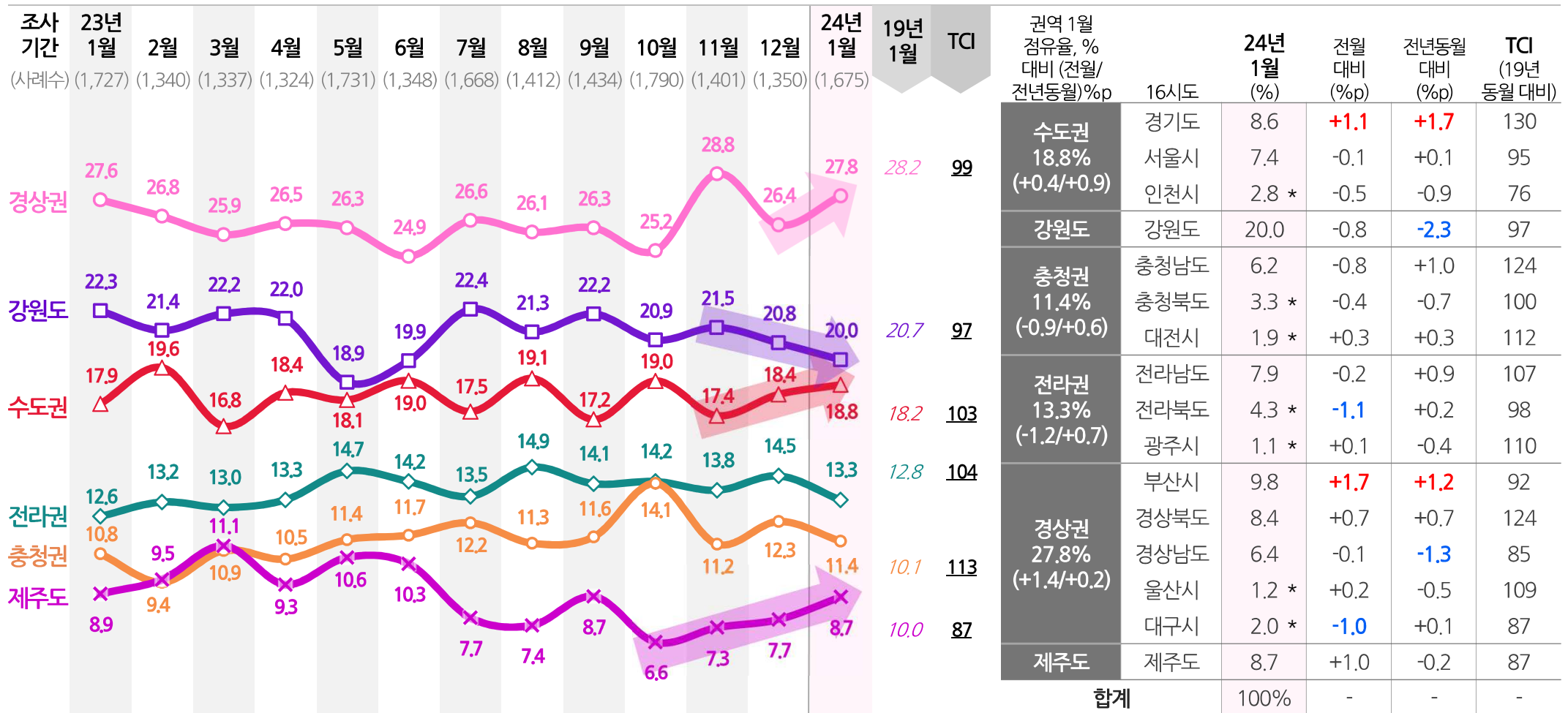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1.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지역

- 당월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경상권(27.8%)', '강원도(20.0%)', '수도권(18.8%)' 순임.
- '수도권'과 '제주도'는 '23년 11월부터 소폭 상승 추이를 보이는 반면, '강원도'는 하락세임.
- TCI는 '충청권'이 113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는 87로 낮음.

[단위: %]



AA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숙박여행 기간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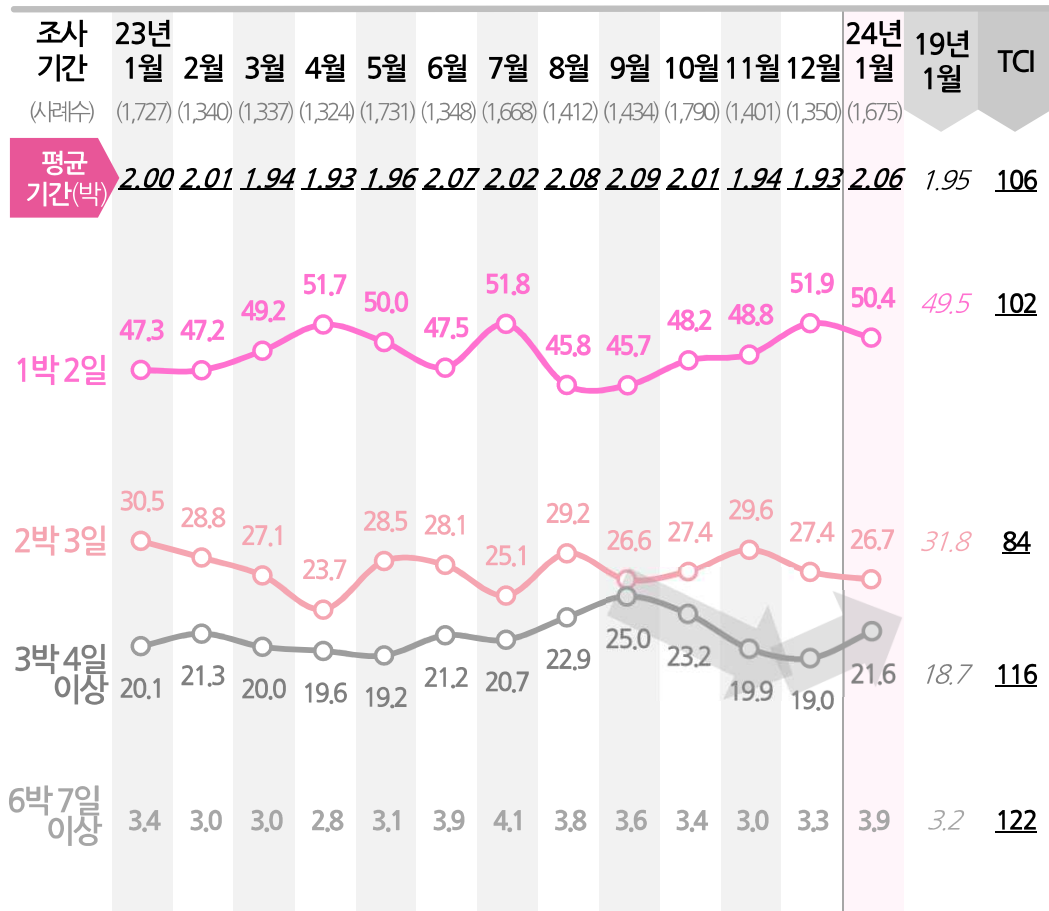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1/40

- 평균 여행 기간은 2.06박으로 '23년 9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3박 4일 이상(21.6%)' 장기 여행이 소폭 상승함.
- 1인당 총 경비는 평균 23.3만원으로 '23년 4월 이후 대부분 23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 1일당 경비는 7.6만원으로 '23년 1월(8.6만 원)에 비해서는 1만 원이 적은 수준이며, '23년 6월 이후 거의 변화 없음.
- 여행 기간과 1인당 총 경비, 1일당 경비의 TCI는 각각 106, 116, 112로 코로나 전 동월보다 여행 기간이 더 길고 비용도 더 많이 씀.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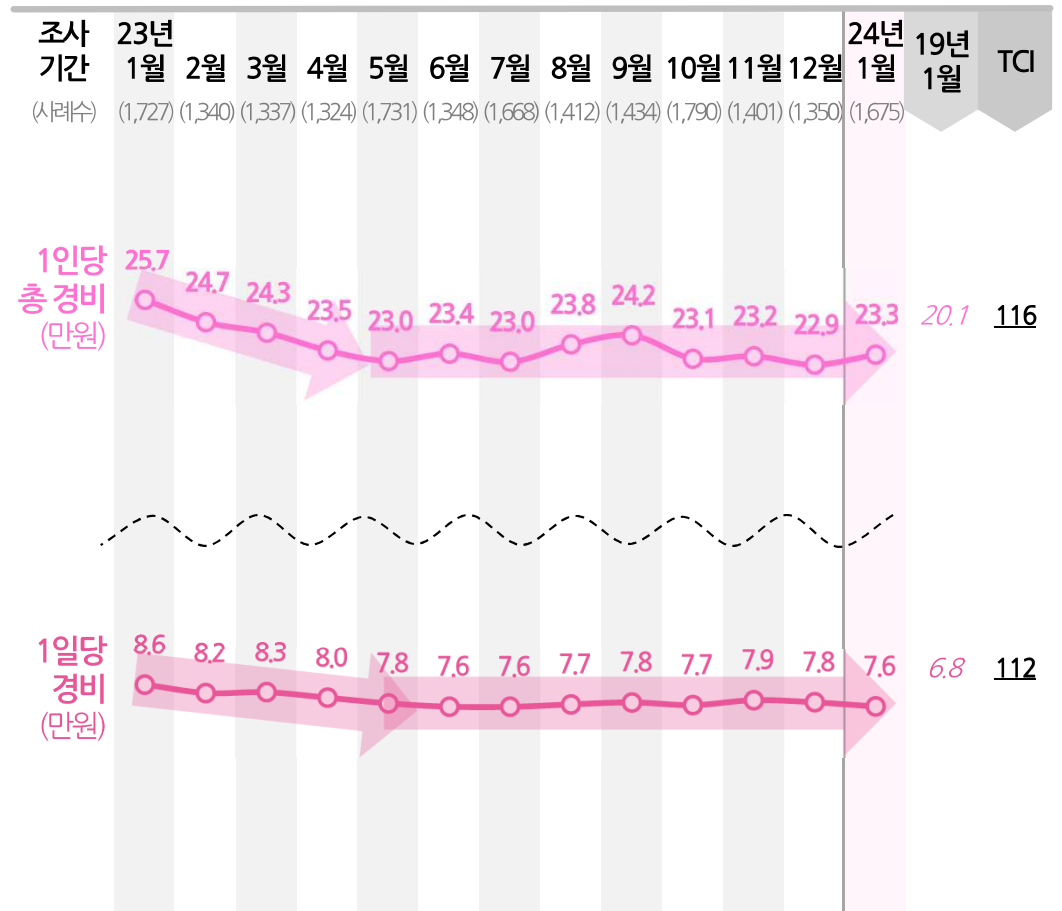
[단위: %]



AA3-1. 최근에 다녀온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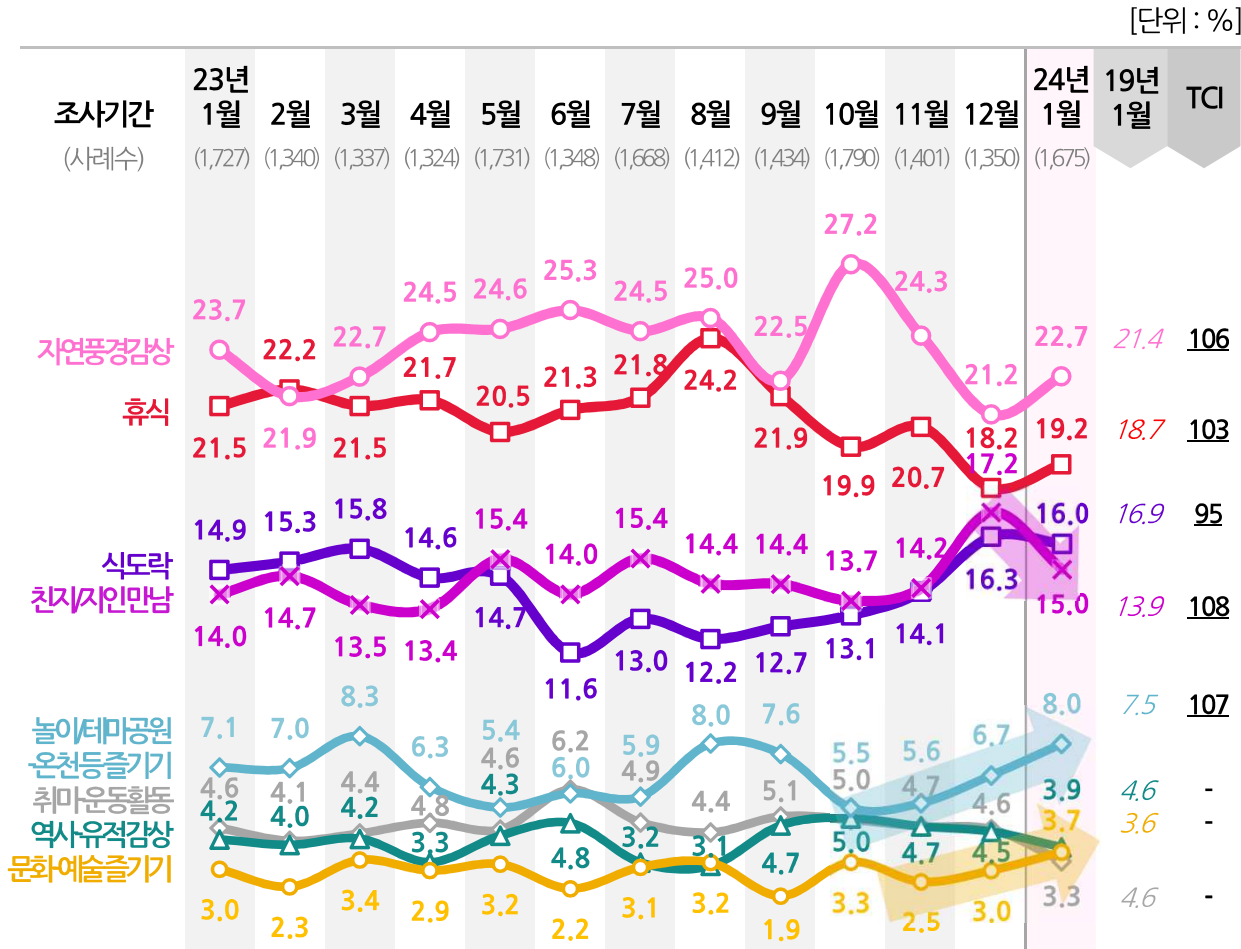
[단위: 만원]



AA17. 'OO' 여행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다?

5. 국내 숙박여행 주 활동

- 국내여행의 주 활동은 '자연풍경감상'이 22.7%로 가장 높고, 이어 '휴식(19.2%)', '식도락(16.0%)', '친지/지인 만남(15.0%)' 순임.
- '놀이/테마공원-온천 등 즐기'와 '문화-예술 즐기'는 소폭 상승 추이를 보였고, 특히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자연풍경감상'과 '취미-운동 활동'은 △강원도와 △제주도가 높았음.



AA15-2. 'OO' 여행을 다녀온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l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 여행지역별 주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675)	(315)	(190)	(465)	(223)	(335)	(146)
자연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2.7	10.8 ▽	22.6	23.8	20.2	30.8 ▲	30.1 ▲
휴식	19.2	13.6 ▽	22.1	18.0	18.4	22.4	24.7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6.0	14.6	12.1	17.6	19.3	15.5	15.0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5.0	20.3 ▲	21.0 ▲	16.5	16.1	8.3 ▽	4.1 ▽
놀이/테마공원-온천 등 즐기	8.0	14.3 ▲	7.9	7.3	4.5 ▽	6.0	6.8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3.9	4.5	2.6	4.3	6.7 ▲	2.4	2.1
문화-예술 즐기 (미술관, 공연 등)	3.7	8.3 ▲	2.1	2.8	2.2	2.1	4.8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3.3	1.6	1.1	1.7 ▽	3.6	6.9 ▲	6.8 ▲

* ▲ ▽ 표시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p<0.05)

6. 국내여행 숙박 장소 및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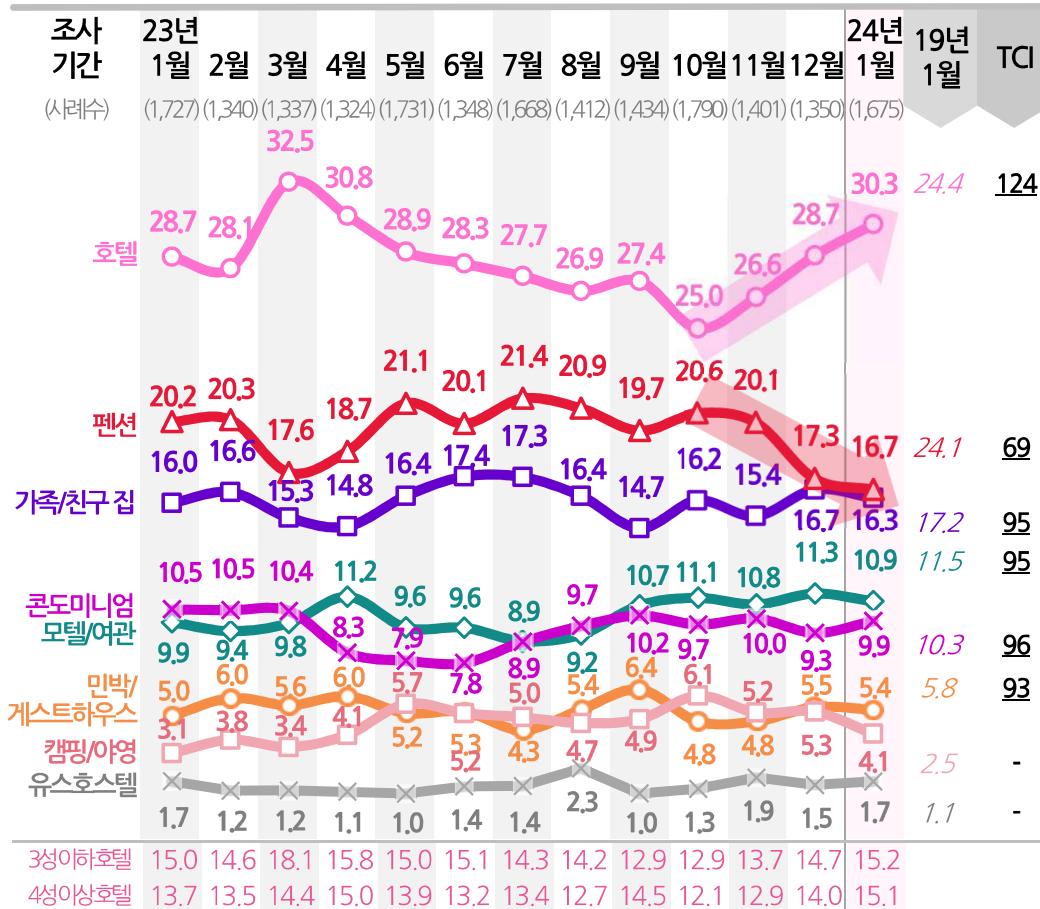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3/40

- 숙박 장소는 ‘호텔(30.3%)’이 가장 많았고, 이어 ‘펜션(16.7%)’, ‘가족/친구 집(16.3%)’ 순임.
- '23년 11월 이후 ‘호텔’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펜션’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2위간 격차가 커짐.
- TCI 또한 ‘호텔’은 124로 코로나 이전 대비 이용이 많아졌으나, ‘펜션’은 69로 가장 낮음.
- 숙박업소 선호이유는 ‘관광지 접근성 및 교통편(21.7%)’이 가장 높고, ‘숙박 비용(21.1%)’, ‘숙박 시설 주변 환경/경관(14.2%)’ 순임.

국내여행 숙박행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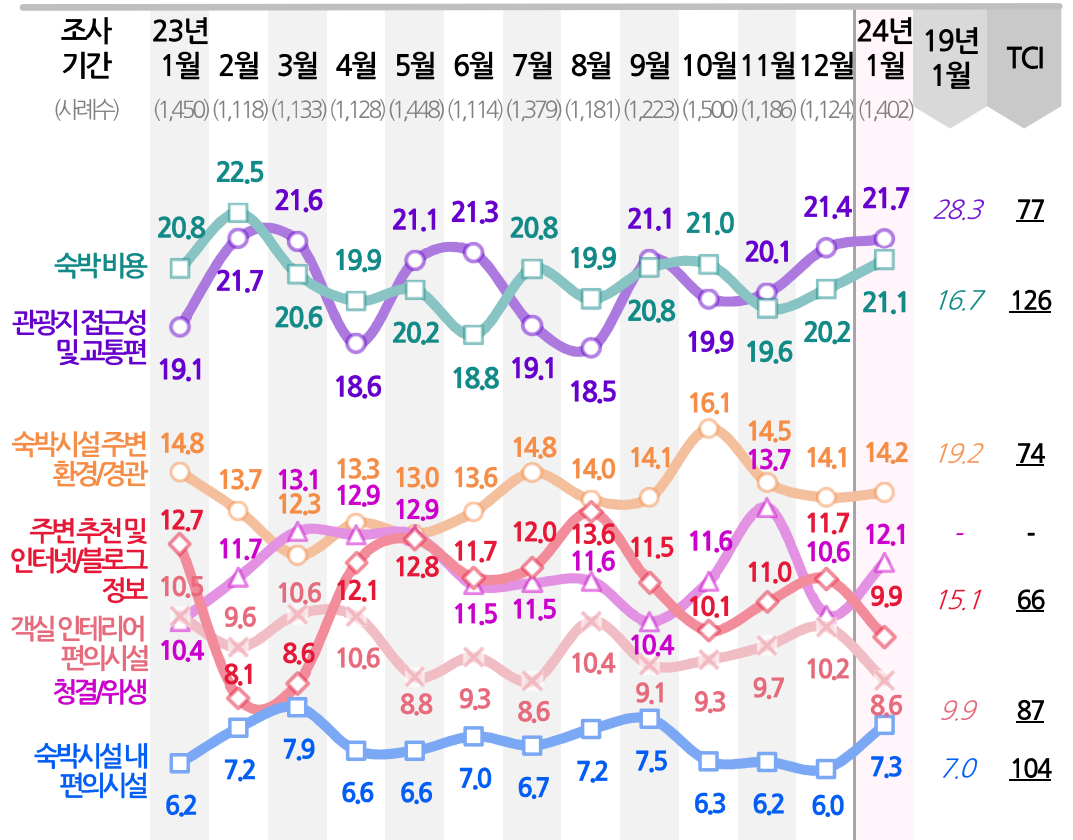


AA10. 'OO'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셨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숙박업소 선호이유

[단위: %]



* 사례수 1,402명, 가족/친구집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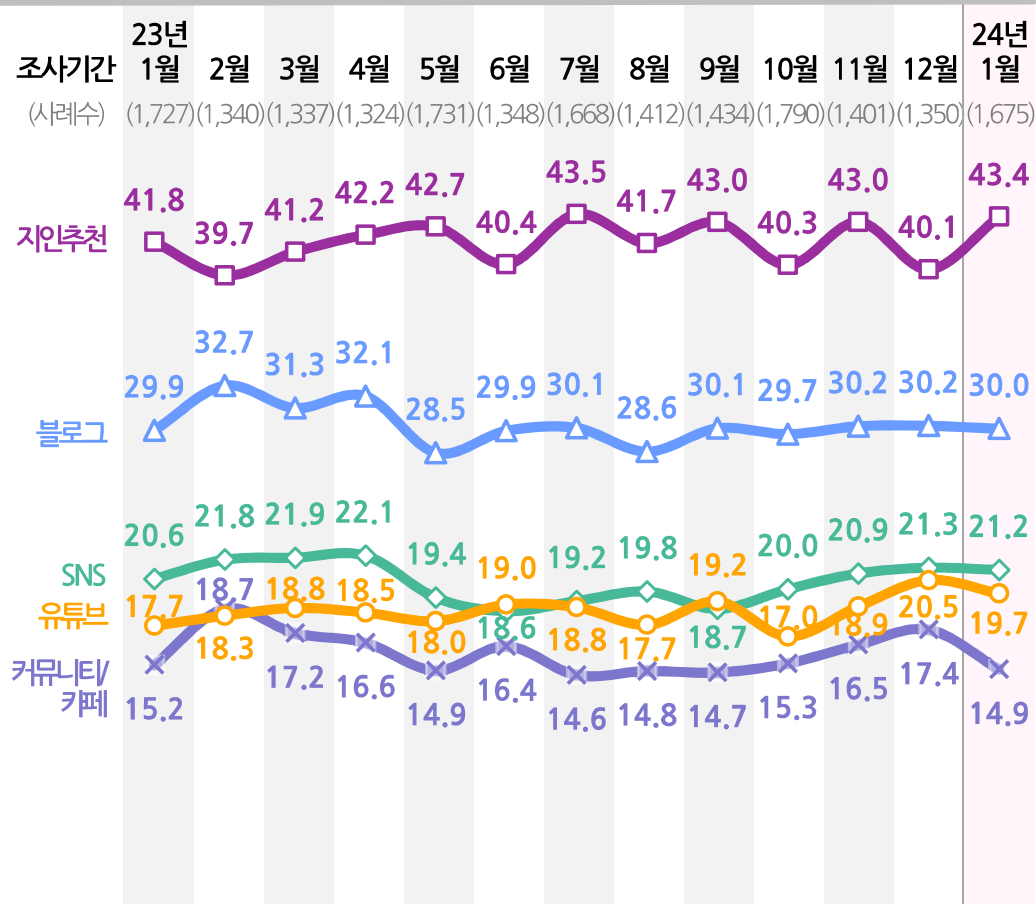
AA11-1. 이용하신 숙박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7. 국내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국내 여행지 정보 탐색 시 ‘지인추천(43.4%)’을 중심으로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을 주로 활용함.
- 반면 ‘전문/공식 정보채널’은 지난 1년 간 큰 변동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함.
- 이는 공공기관과 상업적인 채널이 여행지 정보제공자로서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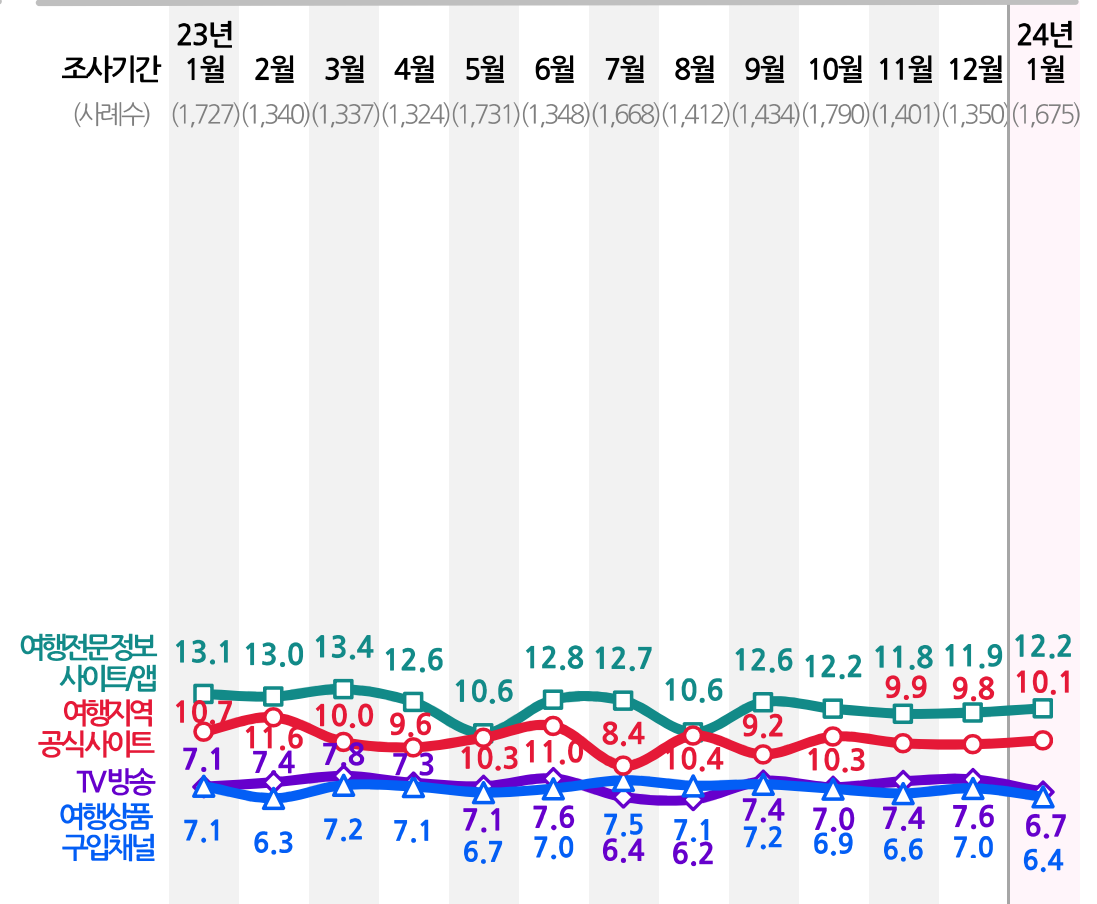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AA2-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결정 시)

8. 국내여행 숙소 정보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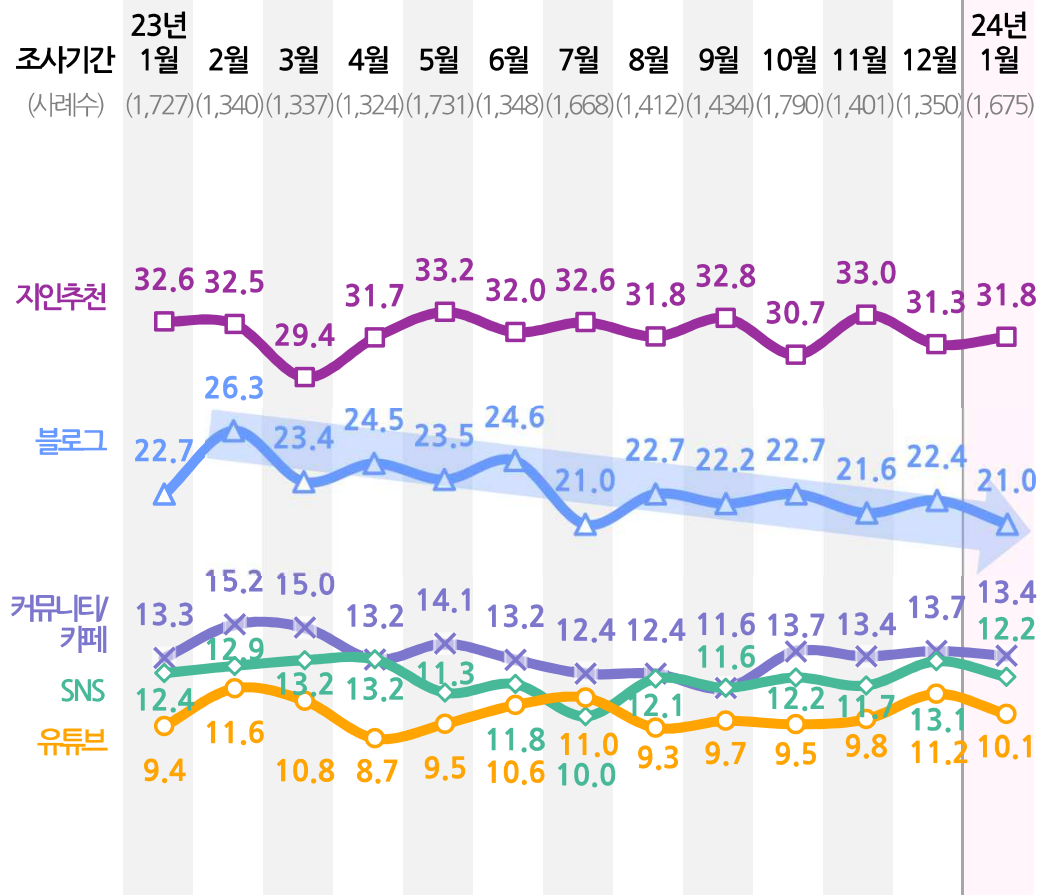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5/40

- 숙소 정보채널은 'SNS/커뮤니티'와 '전문/공식 채널'간의 차이가 작으나 'SNS/커뮤니티'가 다소 우세함.
- 여행지 내 '숙소' 관련 정보탐색 채널로 '지인추천(31.8%)'을 가장 많이 활용함.
- 2위였던 '블로그(21.0%)'는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해 '여행상품 구입채널(22.9%)'에 뒤지게 됨.
- '숙소' 정보탐색 시에 '지인추천'을 제외한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활용도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전문/공식 정보채널'은 모두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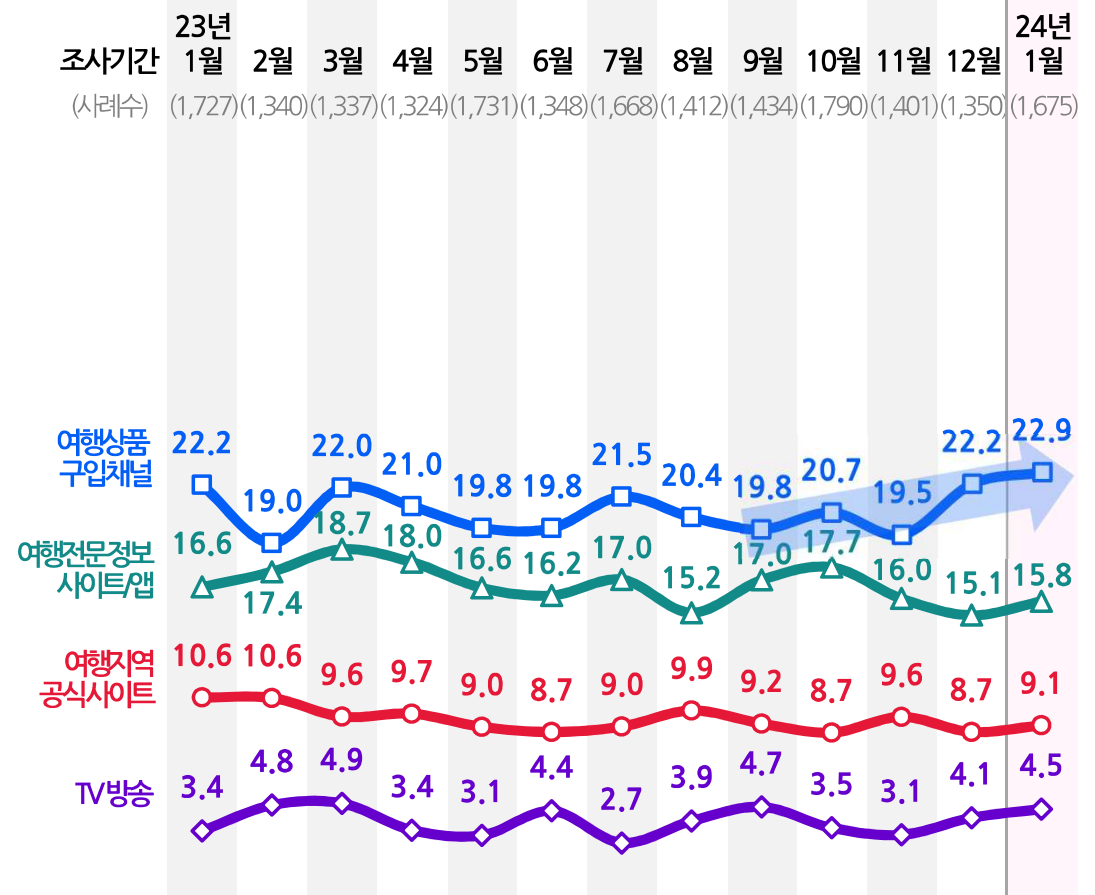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AA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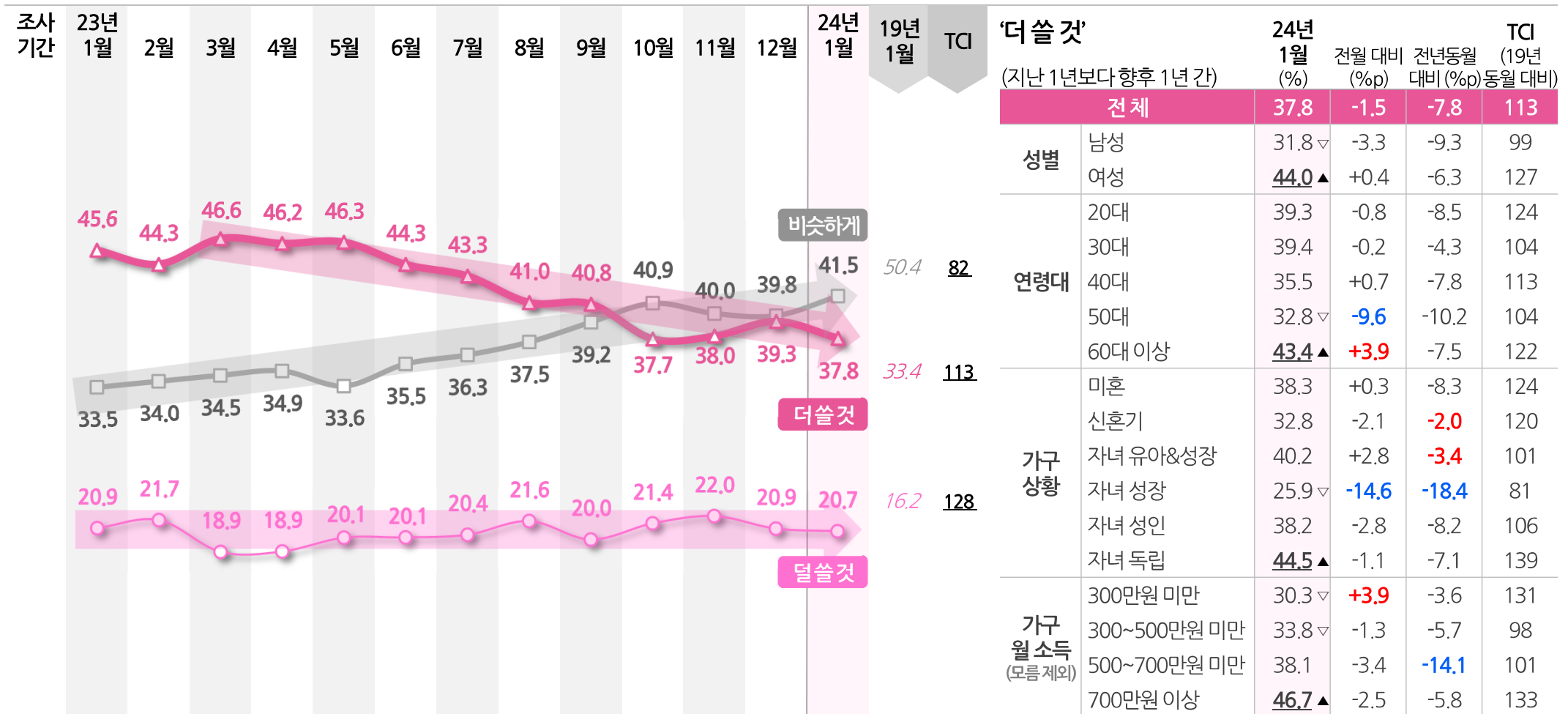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향후 1년간 지난 1년에 비해 관광·여행비를 ‘비슷하게’는 41.5%, ‘더 쓸 것’ 37.8%, ‘덜 쓸 것’은 20.7%순임.
- ‘비슷하게’는 '23년 10월 이래 4개월 연속 ‘더 쓸 것’을 앞서 여행 지출의 감소가 예상됨.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60대 이상 △자녀 독립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더 쓸 것’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여행 시장의 ‘여성화’, ‘실버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한(1,000명)

SQ1-3. 국내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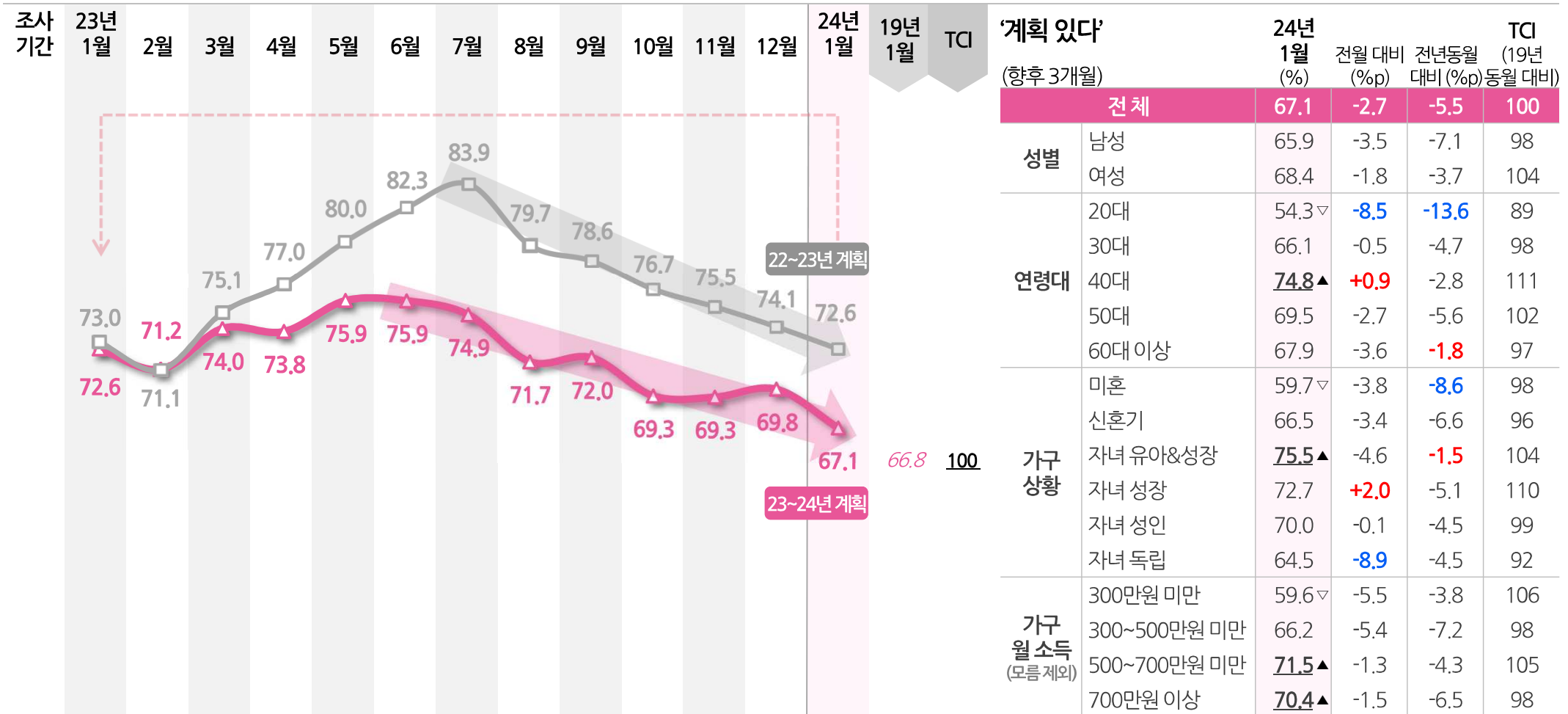
2.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 (향후 3개월)

II-2. 국내여행 계획

18/40

- 3개월 이내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67.1%이며, '23년 7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여행의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TCI는 100으로 코로나 이전 동월(66.8%)과 유사함.
- 인구특성별로는 △40대 △자녀 유아&성장기 △가구 월 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계획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소득', '어린 자녀' 가정의 가족여행이 증가할 것임.
- 지출 의향은 '여성', '실버'가 높아 '지출 의향자'와 '여행 계획자' 간에 다소 거리가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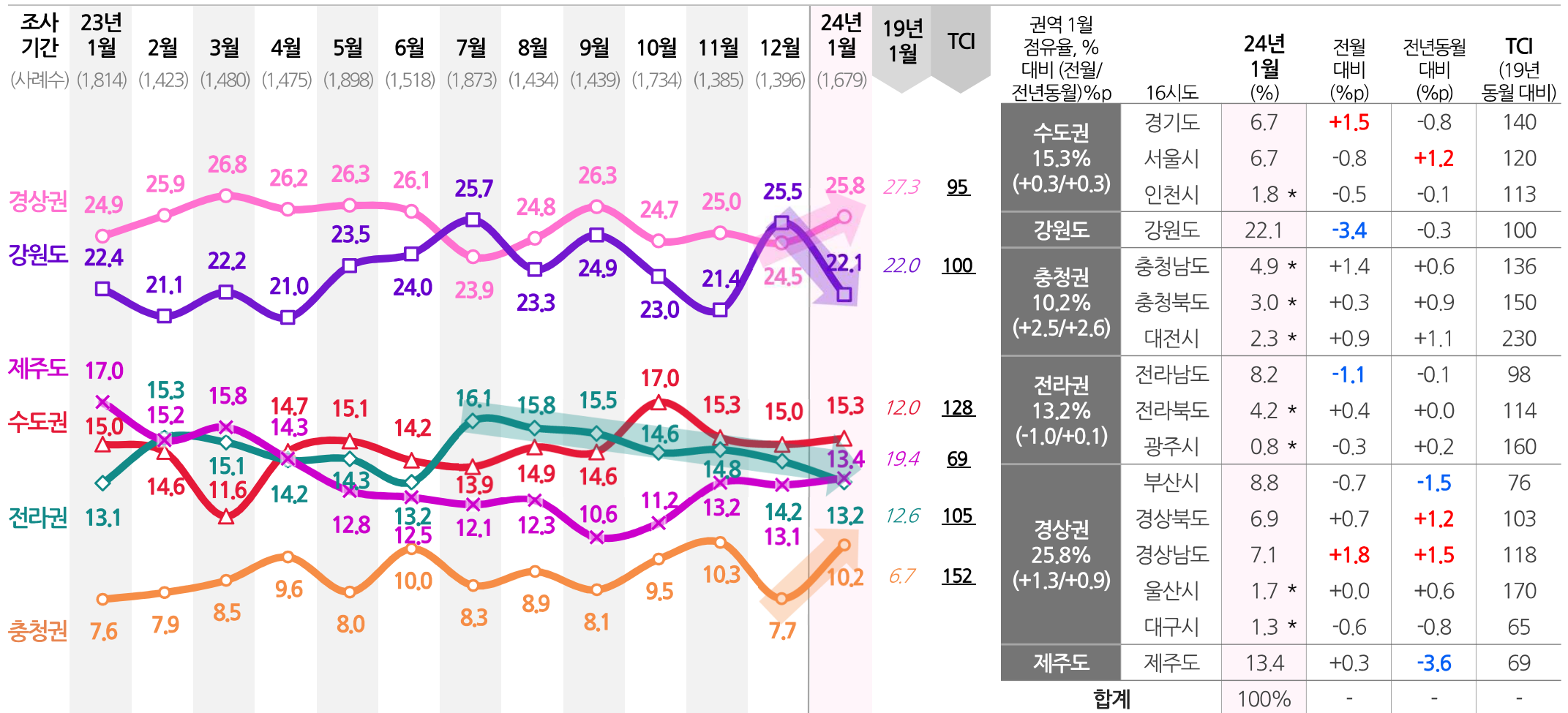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1,000명)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

-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은 '경상권(25.8%)'이 다시 1위로 올라섰고, 이어 '강원도(22.1%)', '수도권(15.3%)' 순임.
- '전라권'은 '23년 8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 TCI는 '충청권'이 152로 가장 높고, '제주도'는 69로 가장 낮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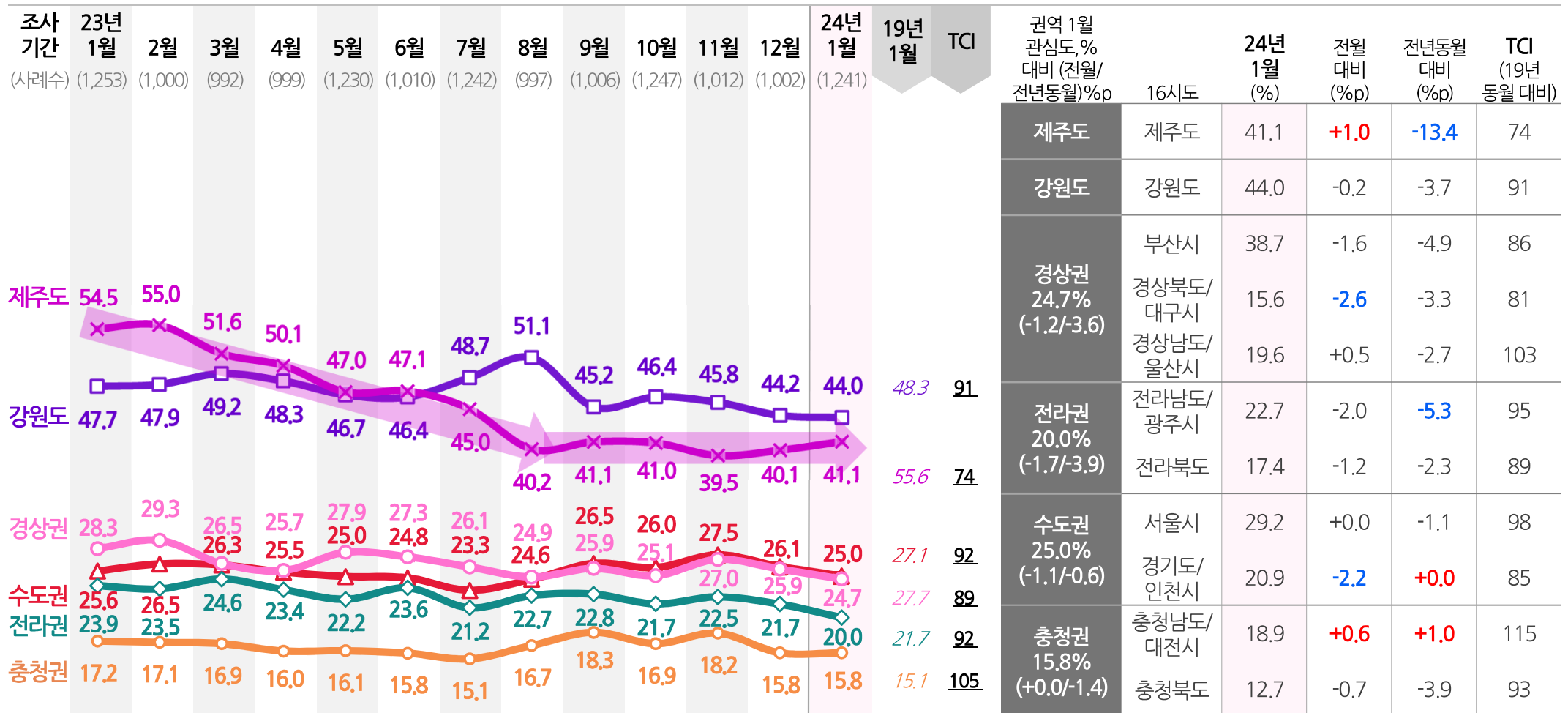
A2-1&2.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여행지 관심도

- 지난 1년 간 국내여행 지역 관심도(% ,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강원도(44.0%)'가 '23년 6월 이후 1위를 유지함.
- '제주도(41.1%)'는 '23년 1월 54.5%에서 8월 40.2%까지 하락한 이후 큰 변동 없음.
- 여행지 관심도 TCI는 '충청권'이 105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74로 가장 낮음.

[단위 : Top2 box%(매우 많아졌다+많아졌다)]



SQ2-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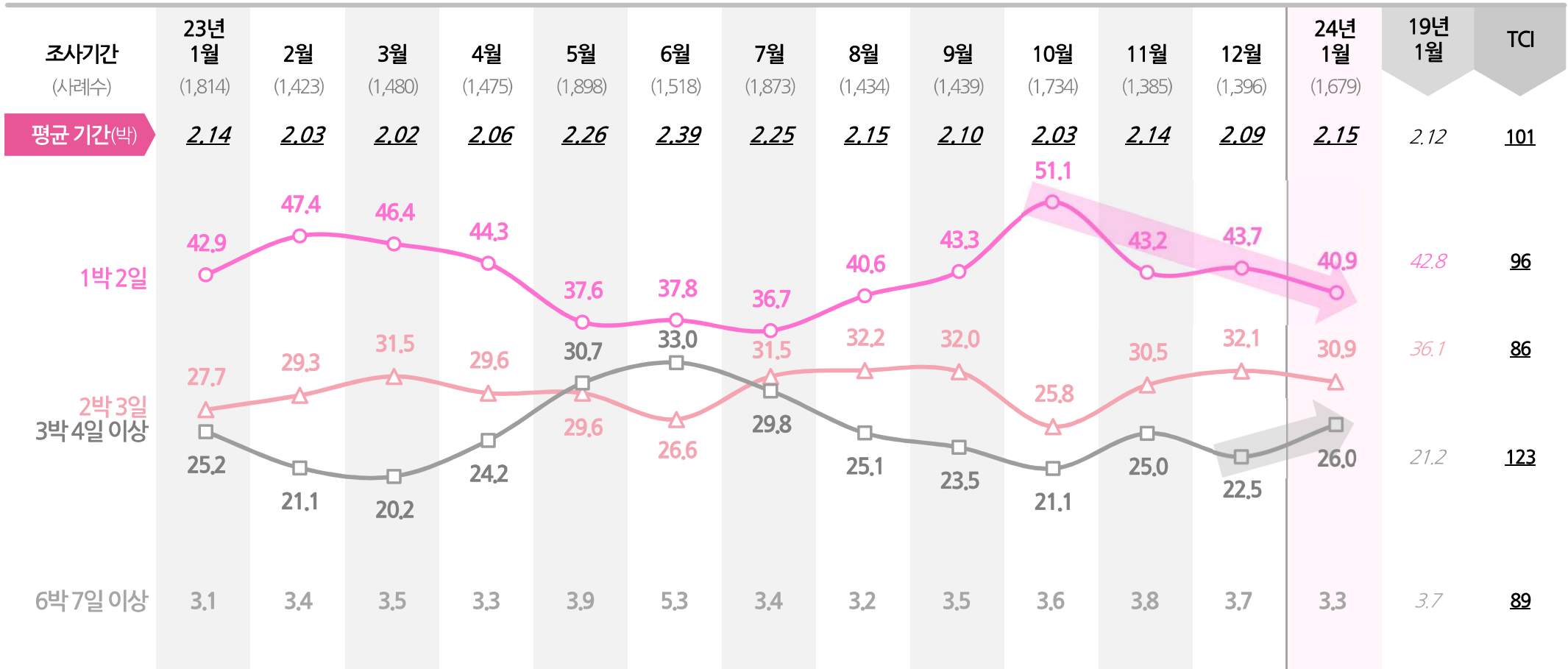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시도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

- 당월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은 평균 2.15박으로 코로나 이전 동월과 유사함(TCI 101).
- ‘1박 2일(40.9%)’ 단기 여행은 감소한 반면, ‘3박 4일 이상(26.0%)’ 장기 여행은 늘어나 평균 여행 계획 기간이 증가함.

계획 중인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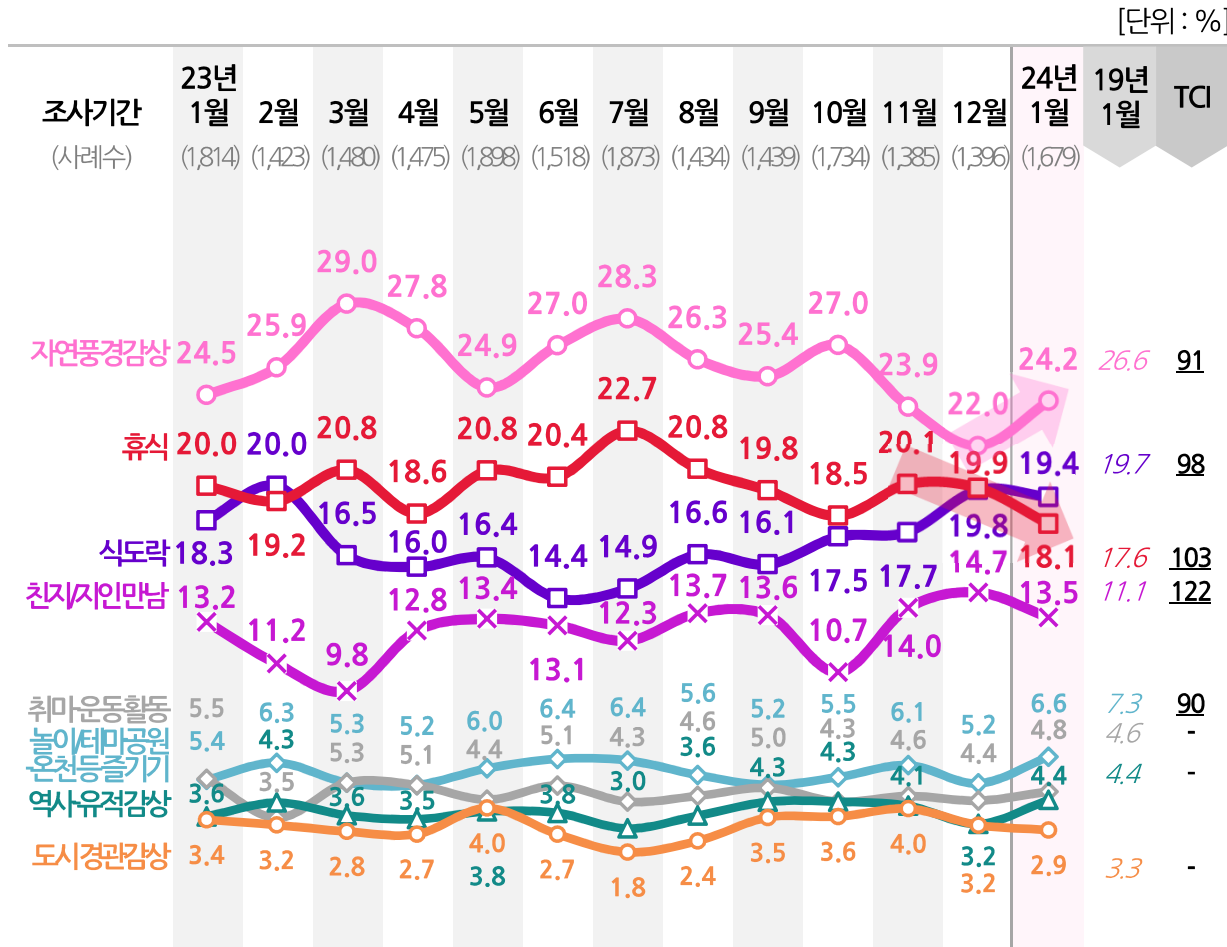
[단위: %]



A3-1. 계획하고 계신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내 숙박여행 계획 활동

- 계획 중인 숙박여행의 주 목적은 ‘자연풍경감상(24.2%)’, ‘식도락(19.4%)’, ‘휴식(18.1%)’ 등의 순임.
- △수도권 여행 계획자들은 ‘친지/지인 만남’이 주목적인 경우(26.5%)가 계획 활동 중 1위이며, 전국 평균(13.5%)의 2배에 가까움.
- '23년 3월 이후 2위를 유지하던 ‘휴식’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3위였던 ‘식도락’과 순위가 뒤바뀜.



▶ 여행지역별 주 계획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679)	(257)	(171)	(433)	(222)	(371)	(225)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4.2	10.9▽	19.9	20.6▽	24.3	32.6▲	35.6▲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9.4	10.6▽	19.8	22.4	23.0	21.6	16.5
휴식	18.1	19.1	21.0	16.6	15.3	18.1	20.4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3.5	26.5▲	14.1	15.7	15.3	5.9▽	4.4▽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 즐기기	6.6	9.0	9.9	4.9	2.3▽	8.6	5.3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8	2.7	1.2▽	5.3	5.4	5.1	8.0▲
역사 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4.4	4.3	5.3	6.9▲	5.9	1.3▽	2.7
도시 경관 감상 (건축물, 거리 등)	2.9	3.5	1.7	3.2	3.2	3.0	2.2

A4-3.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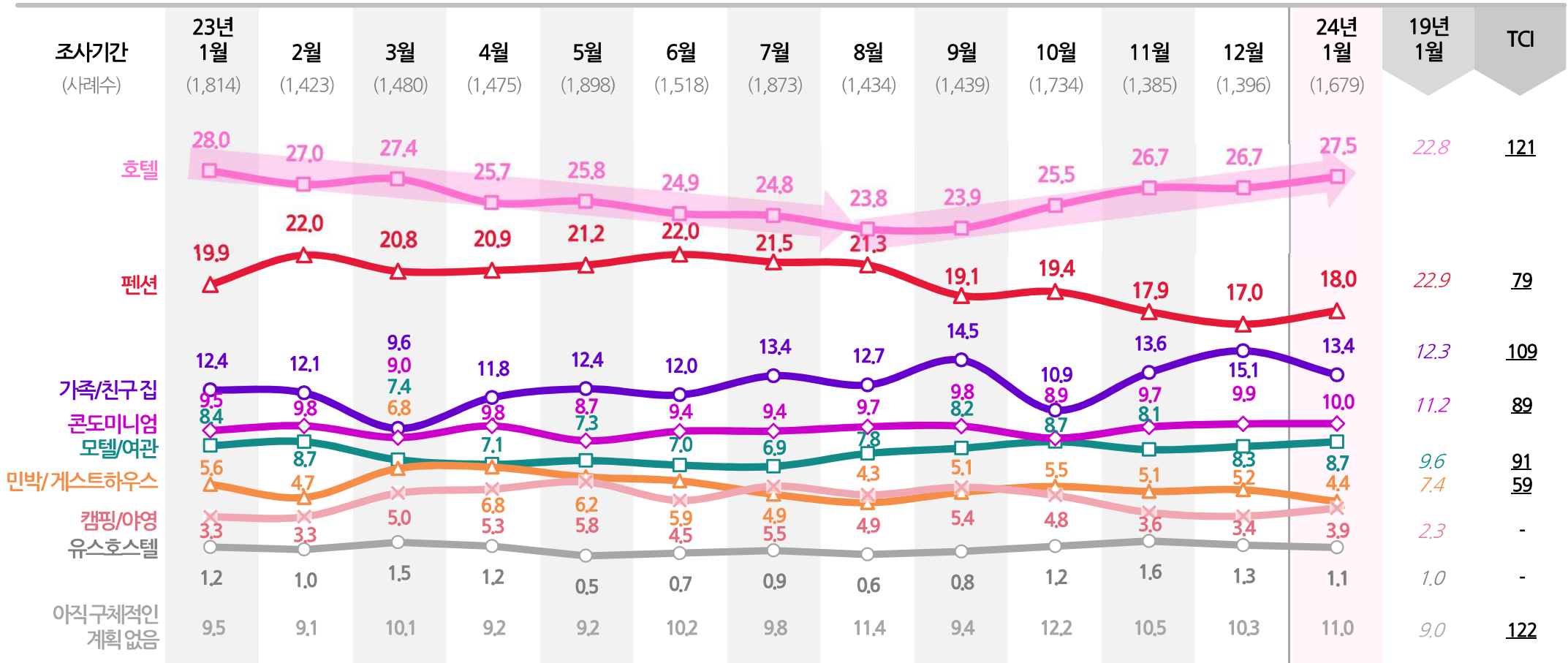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7.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

- 숙박 예정 장소는 ‘호텔(27.5%)’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펜션(18.0%)’, ‘가족/친구 집(13.4%)’ 등의 순임.
- ‘호텔’의 TCI는 121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고려율이 높아진 반면, ‘가족/친구 집(TCI 89)’, ‘펜션(TCI 79)’, ‘민박/게스트하우스(TCI 59)’ 고려율은 크게 낮아짐.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

[단위 : %]



A10. 여행지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오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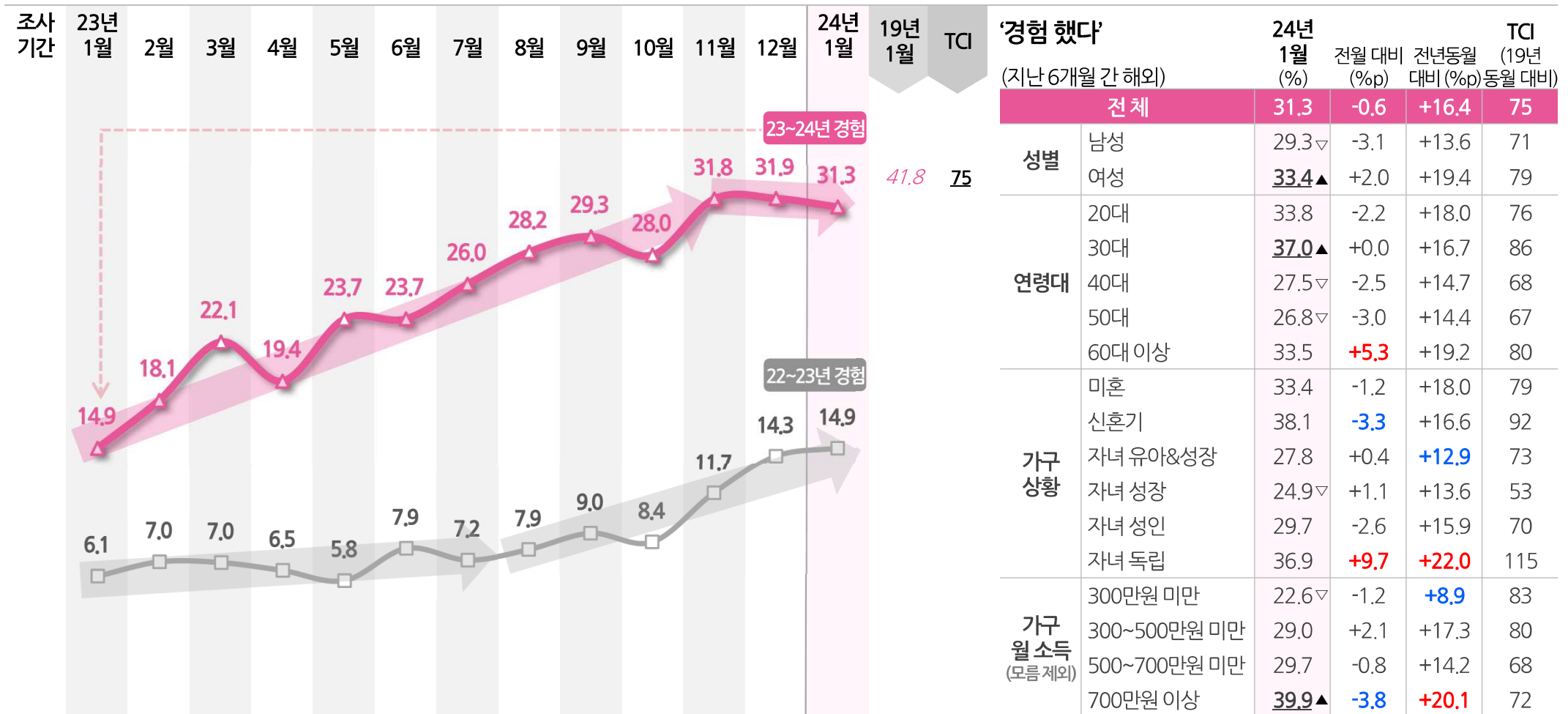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경험률 (지난 6개월)

- 지난 6개월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31.3%로 3개월 연속 변화가 크지 않고(31%대), TCI는 75로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음.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30대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1,000명)

SQ4-0.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SQ4-0-1.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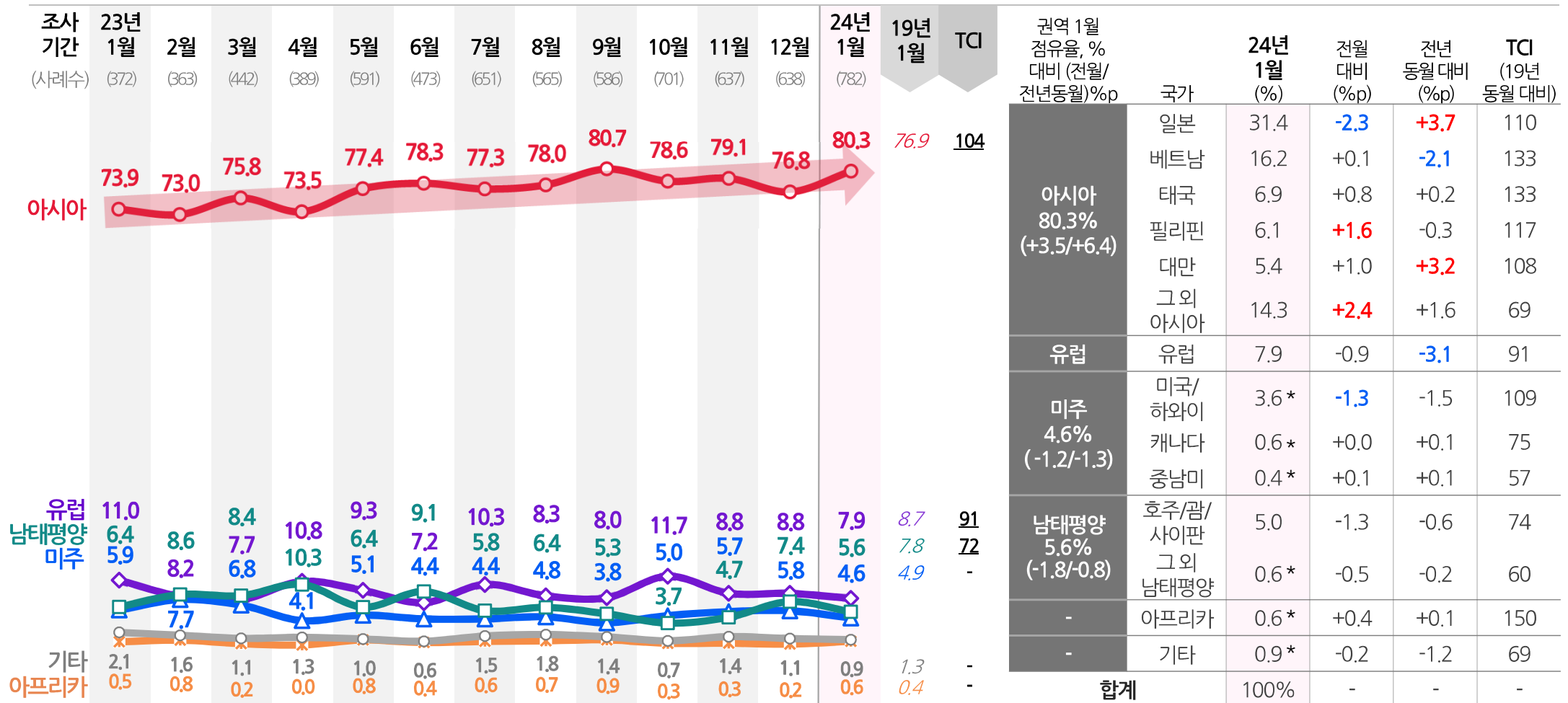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지역 (지난 6개월)

- 해외여행지 중 '아시아'의 점유율이 80.3%이며, 큰 변동 없이 전체의 ¾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 국가별 점유율은 '일본(31.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베트남(16.2%)', '태국(6.9%)', '필리핀(6.1%)', '대만(5.4%)' 순임.
- 해외여행지 점유율 TCI는 '베트남' 133, '태국' 133, '대만' 117로 아시아 권역 국가가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높아짐.

[단위: %]



BB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여행하신 지역을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기간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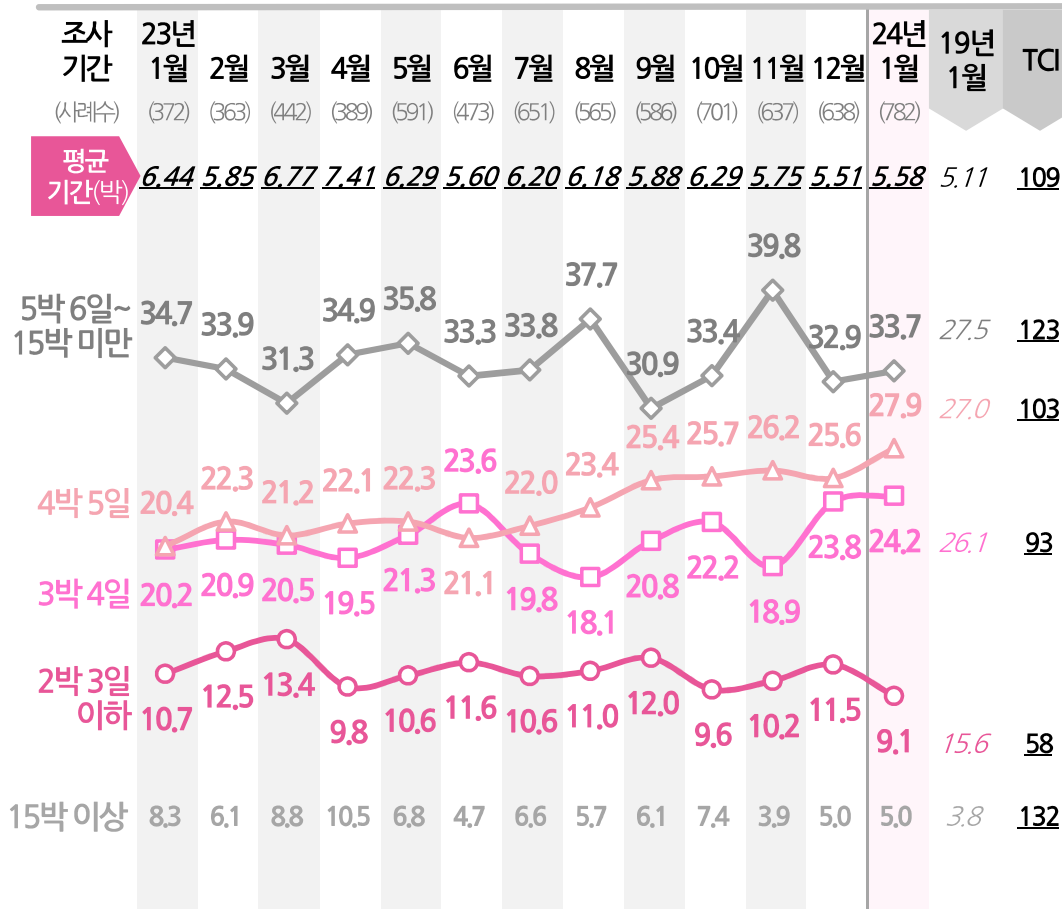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27/40

- 지난 6개월 간 다녀온 해외여행의 평균기간은 5.58박, 1인당 총 경비 181.1만 원, 1일당 경비 27.5만 원임.
- 여행 평균 기간과 1인당 총 경비는 큰 변동 없이 유사함.
- 주요 지표의 TCI는 여행기간 109, 1인당 총 경비 128, 1일당 경비 119로 코로나 이전보다 여행 기간은 늘어나고 더 많은 비용을 씀.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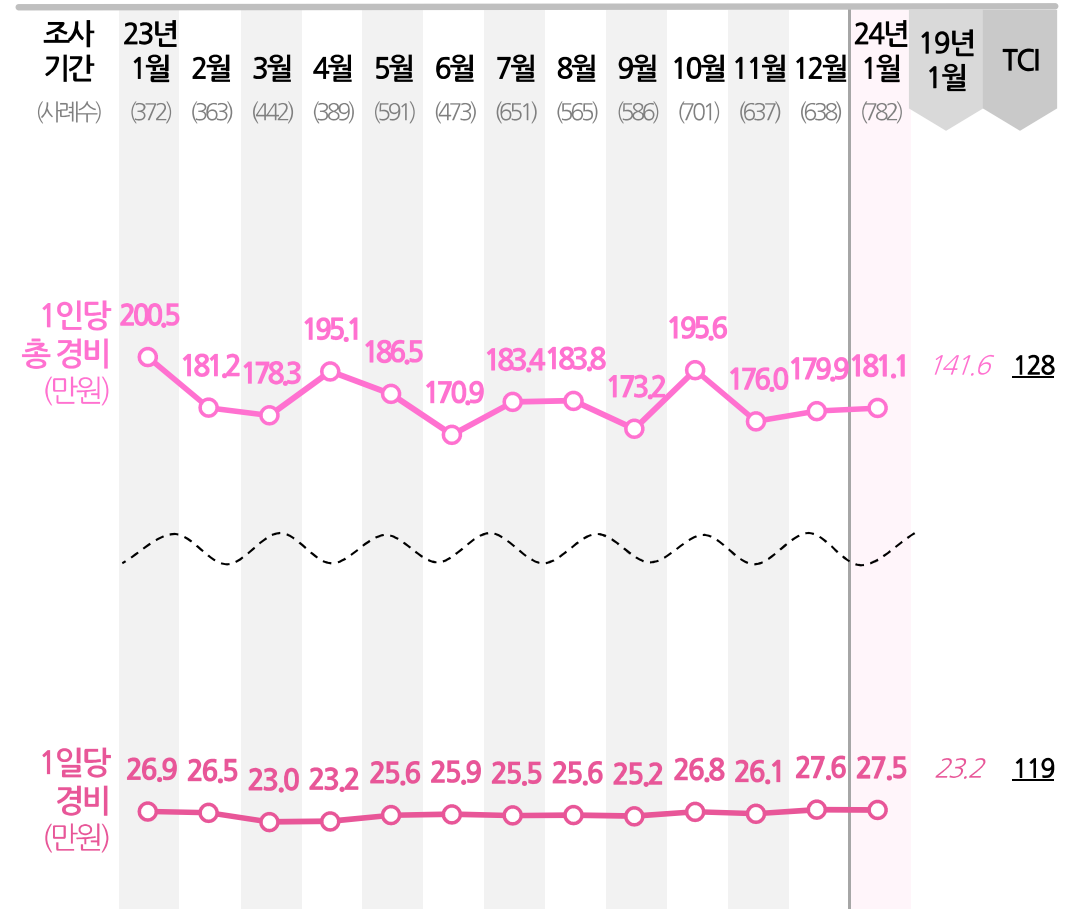
[단위 : %]



BB5-2. 다녀온 'OO'여행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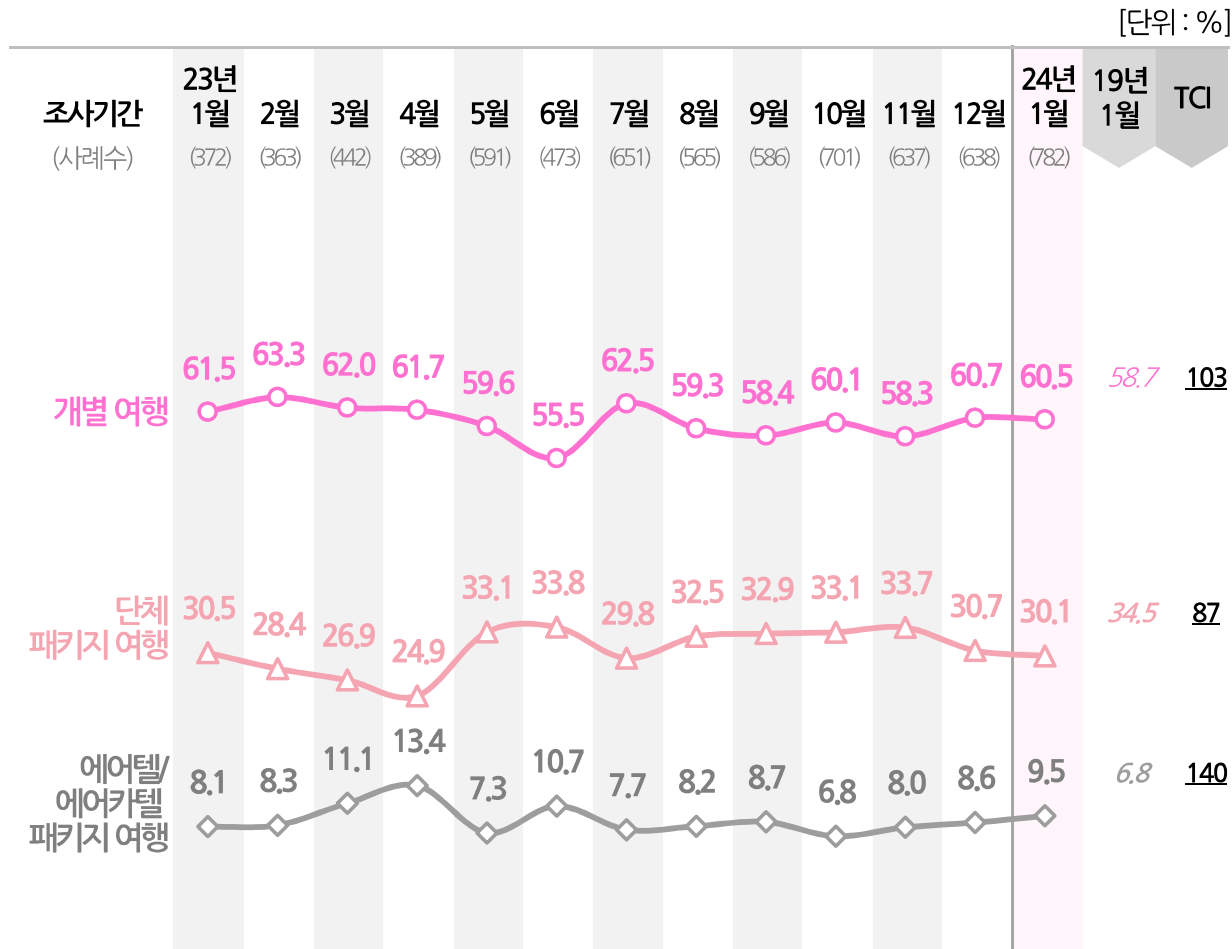
[단위 : 만원]



BB16. 'OO' 여행에서 각 부분들을 위해 대략 얼마정도 지출하셨습니까?

4. 해외여행 형태

-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이 60.5%, ‘단체 패키지’는 30.1%,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9.5%임.
- ‘단체 패키지’의 TCI는 87로 코로나 이전 동월보다 줄어든 반면,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의 TCI가 140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남.
- ‘개별 여행’은 △아시아,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럽과 △남태평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BB8. 'OO'여행은 어떤 형태로 가셨나요?

▶ 여행지역별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782)	(628)	(36)	(62)	(44)	(5)
개별 여행	60.5	<u>62.9</u> ▲	63.9	45.1▼	45.4▼	80.1
단체 패키지 여행	30.1	28.0▼	22.2	<u>43.6</u> ▲	<u>45.4</u> ▲	19.9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9.5	9.1	13.9	11.3	9.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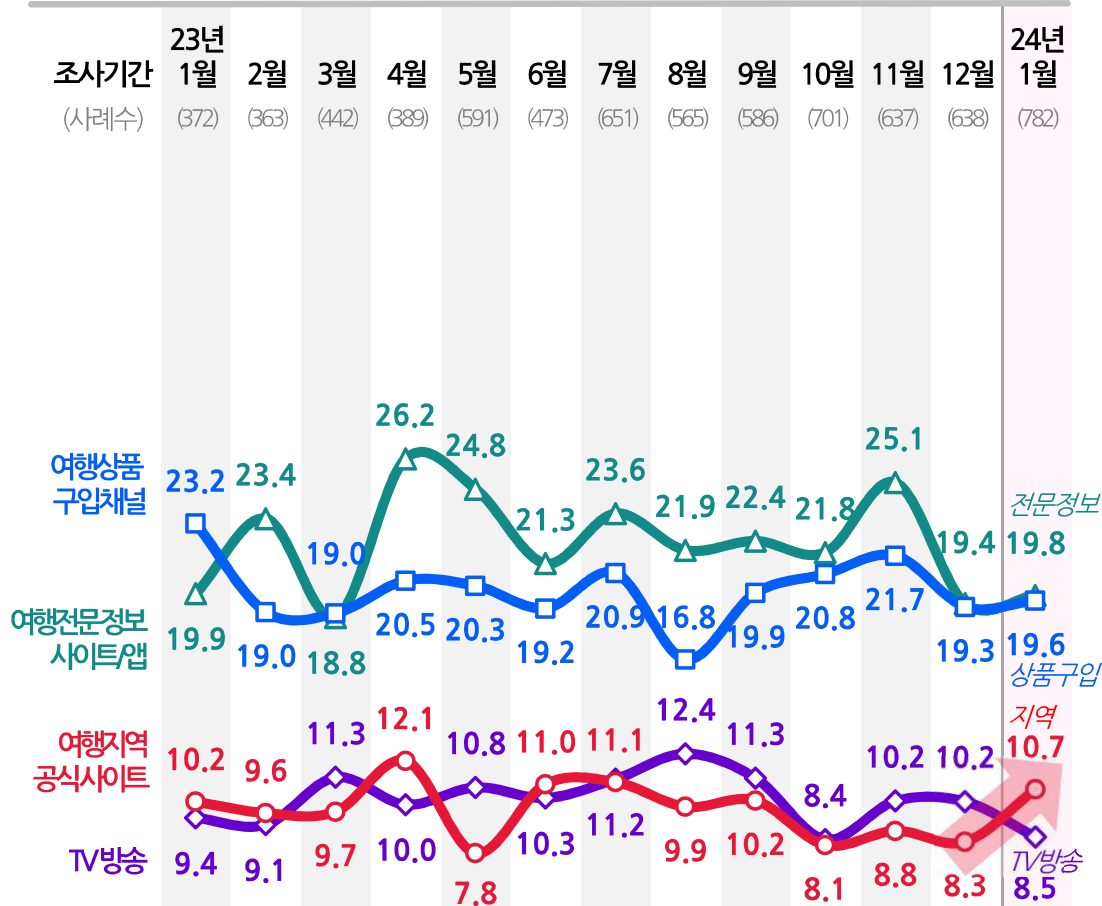
* ▲▼ 표시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05)

5. 해외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해외여행지 정보 탐색 시 '전문/공식 정보채널'보다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활용도가 높으나, 국내여행에 비하면 '전문/공식 정보채널'의 의존도가 큼.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중에서는 '블로그'가 36.7%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이어 '지인추천(34.3%)', '유튜브(30.2%)', '커뮤니티/카페(25.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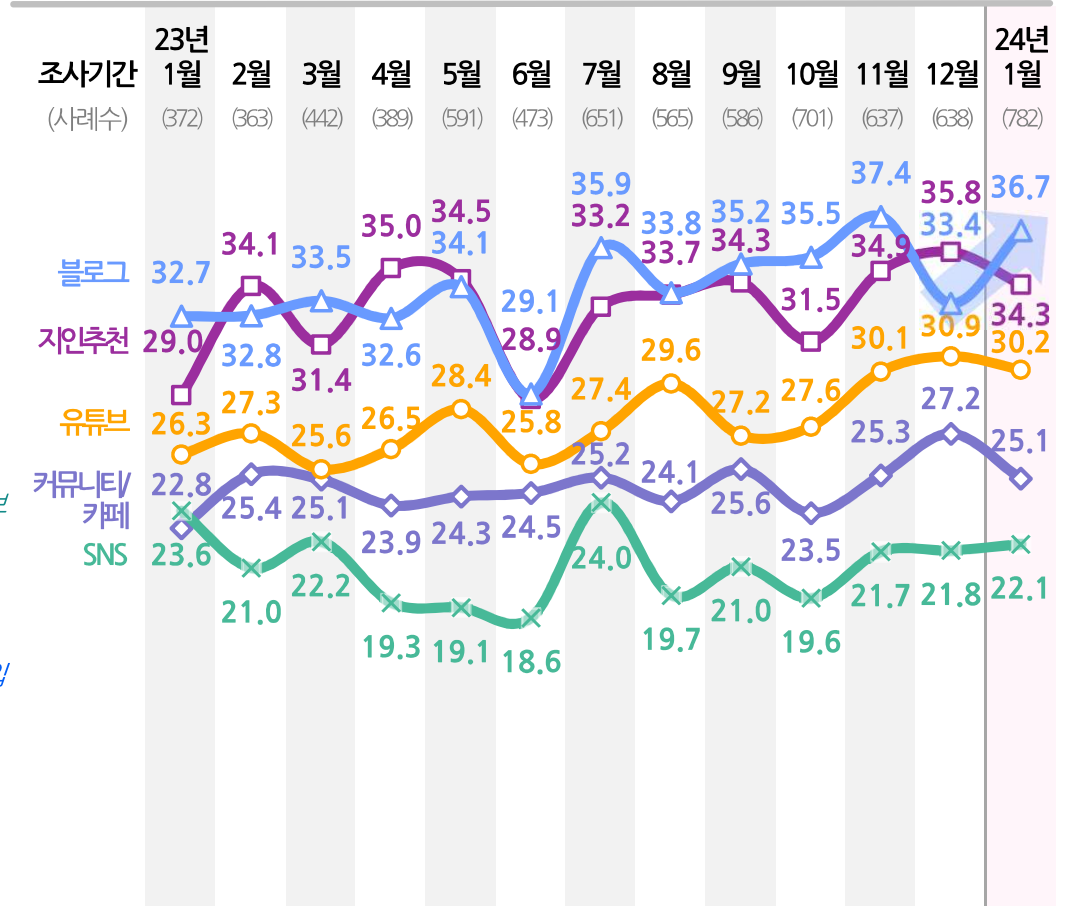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6.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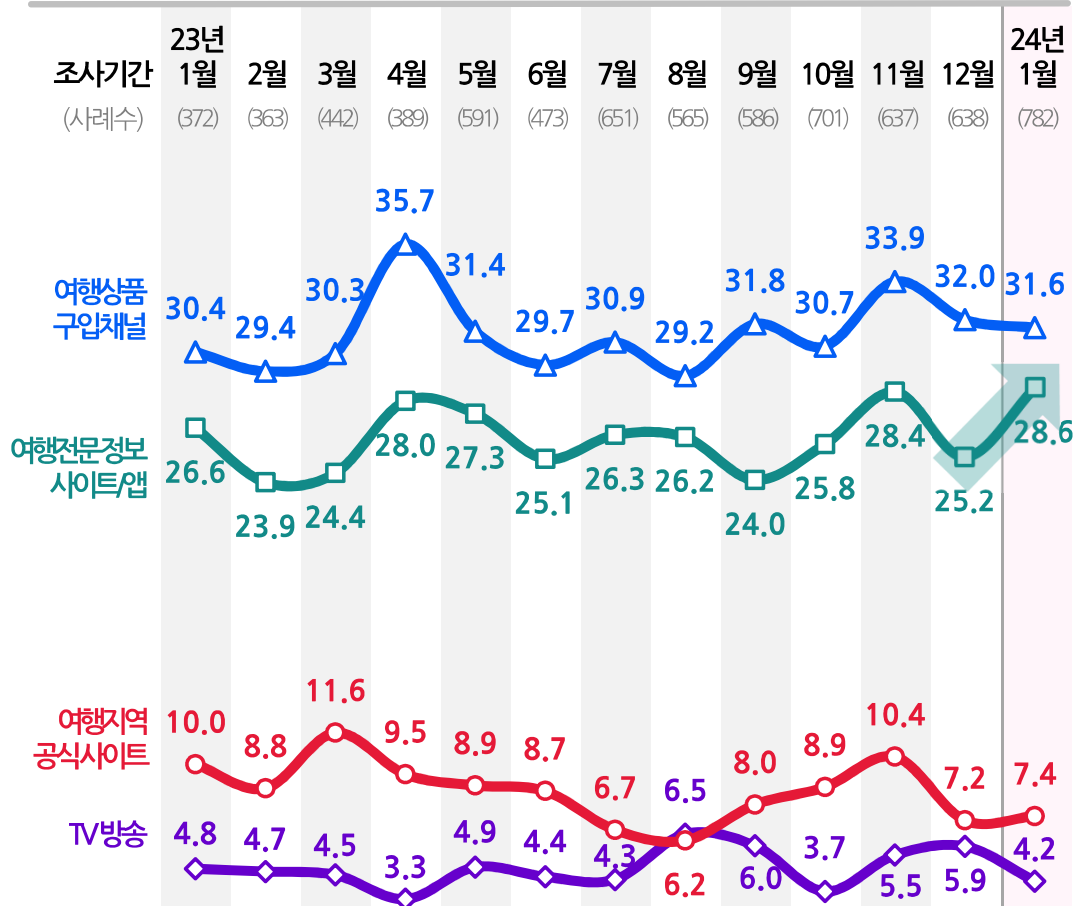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30/40

-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시에는 '여행상품 구입채널(31.6%)'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28.6%)' 등 상업적 채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서는 '블로그(26.2%)' 활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지인 추천(20.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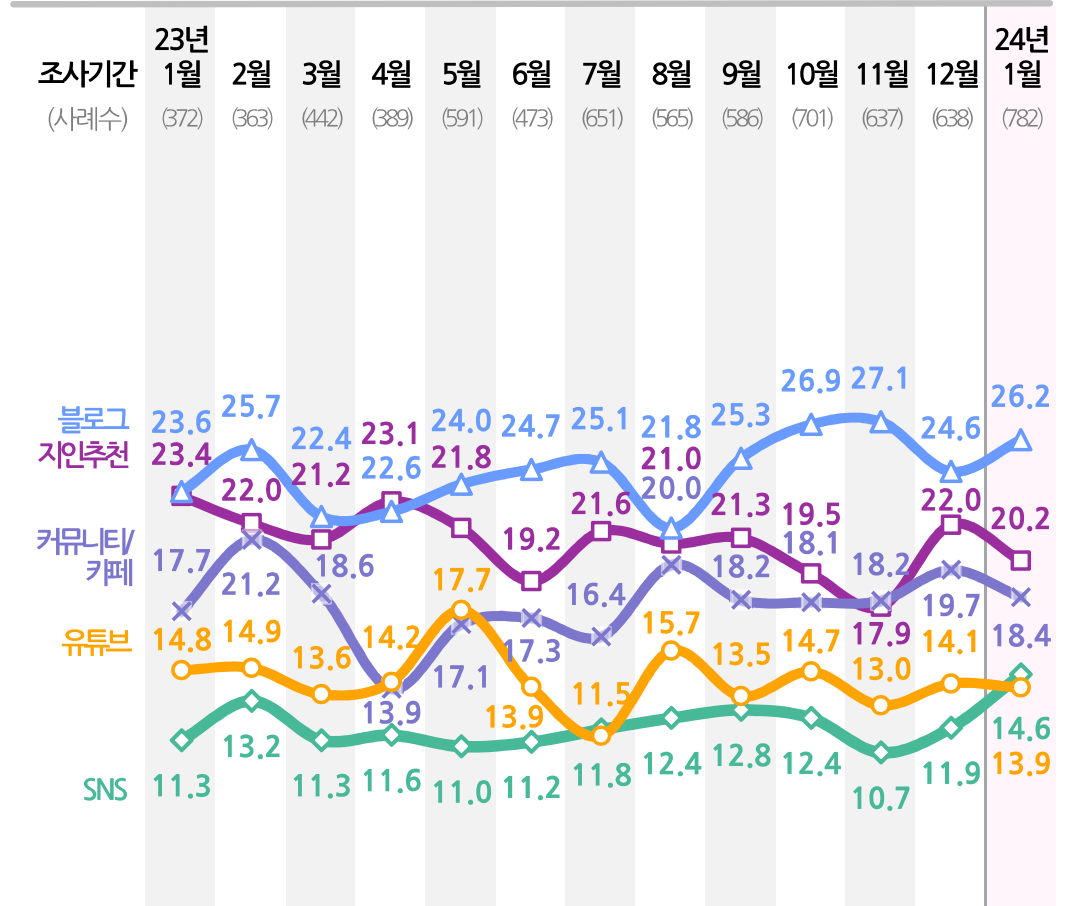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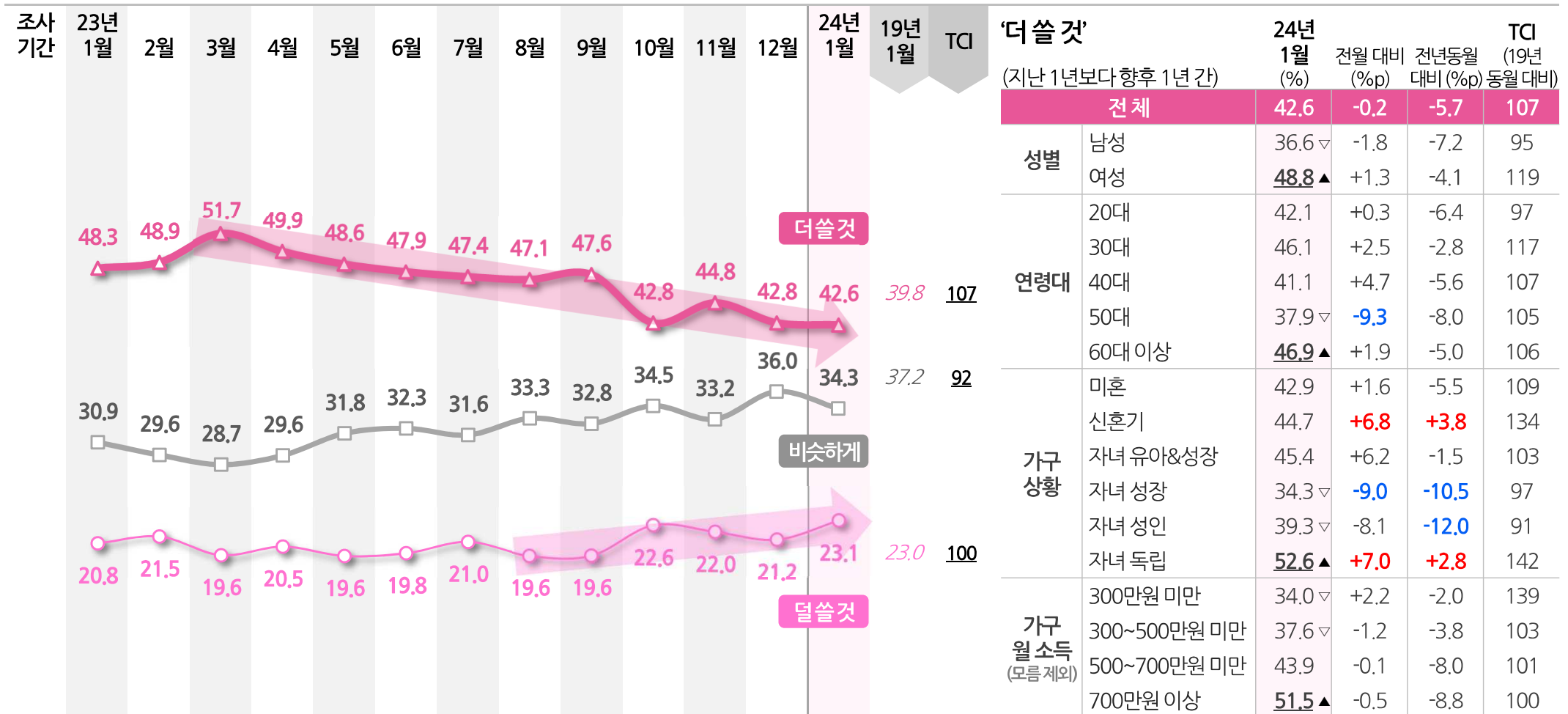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향후 1년간 지난 1년에 비해 해외 여행 시 관광·여행비를 ‘더 쓸 것’ 응답은 42.6%로 꾸준히 감소세인 반면, ‘덜 쓸 것(23.1%)’은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함. 해외여행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60대 이상 △자녀 독립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해외 여행비 ‘더 쓸 것’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국내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성화’, ‘실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4. 해외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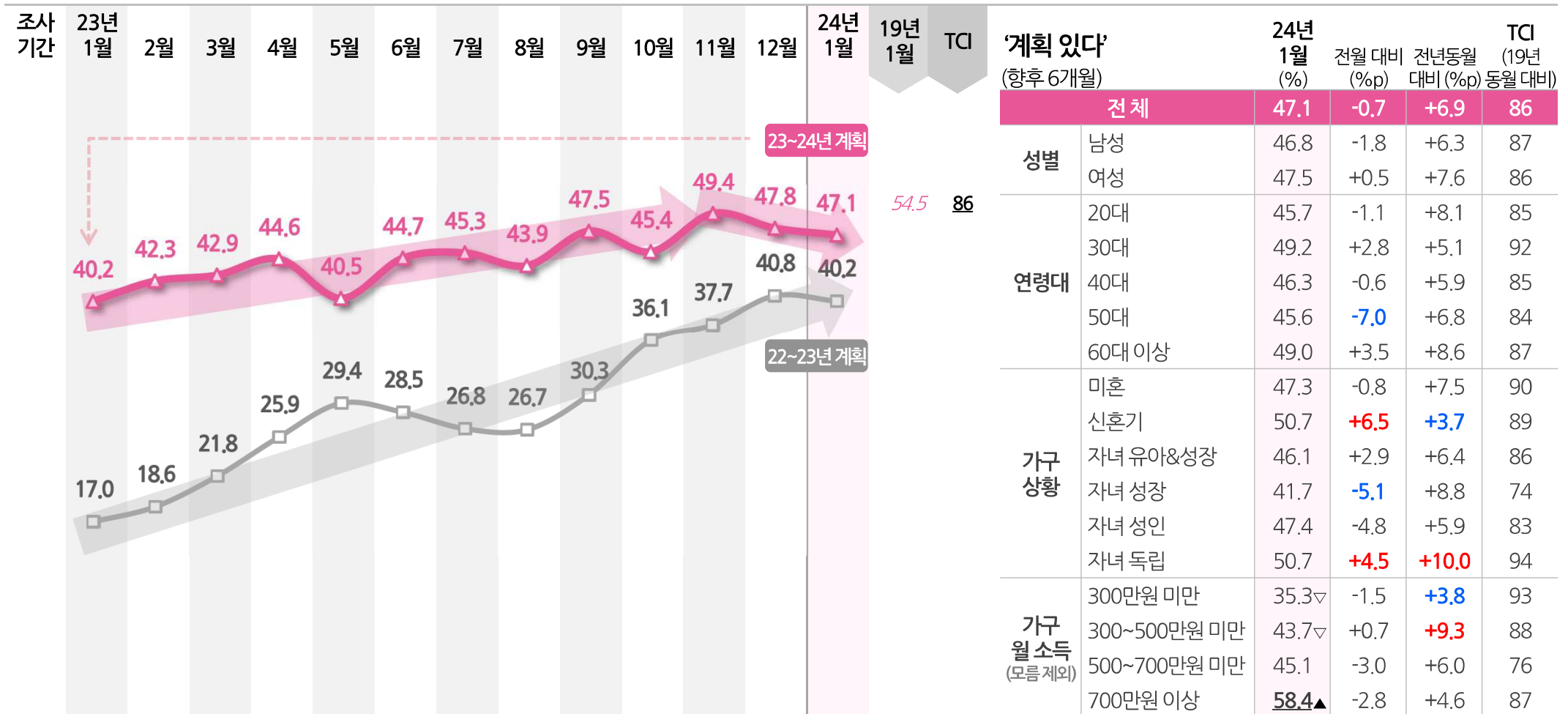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위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계획률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계획률은 47.1%로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TCI는 86임.
- 인구특성별로는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계획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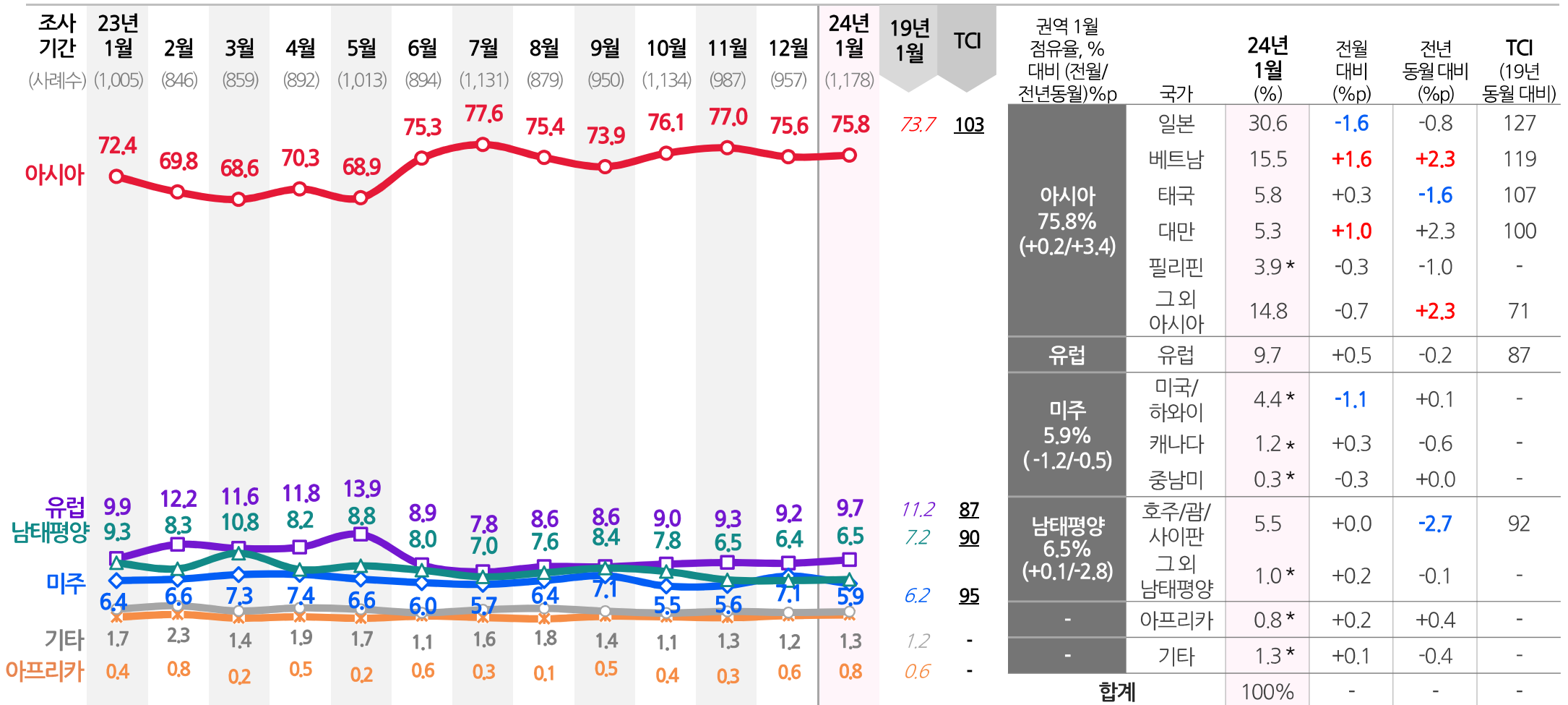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SQ4-1. 그렇다면,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예정 지역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예정 지역 점유율은 '아시아'가 75.8%로 전체의 ¾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유럽(9.7%)', '남태평양(6.5%)', '미주(5.9%)' 순임.
- '아시아' 중에서도 '일본(30.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베트남(15.5%), 태국(5.8%), 대만(5.3%) 순임.
- TCI는 아시아가 103으로 '19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유럽(87), 남태평양(90), 미주(95)의 여행 계획은 낮음.

[단위: %]



B2-1.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B2-2.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시기에 여행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해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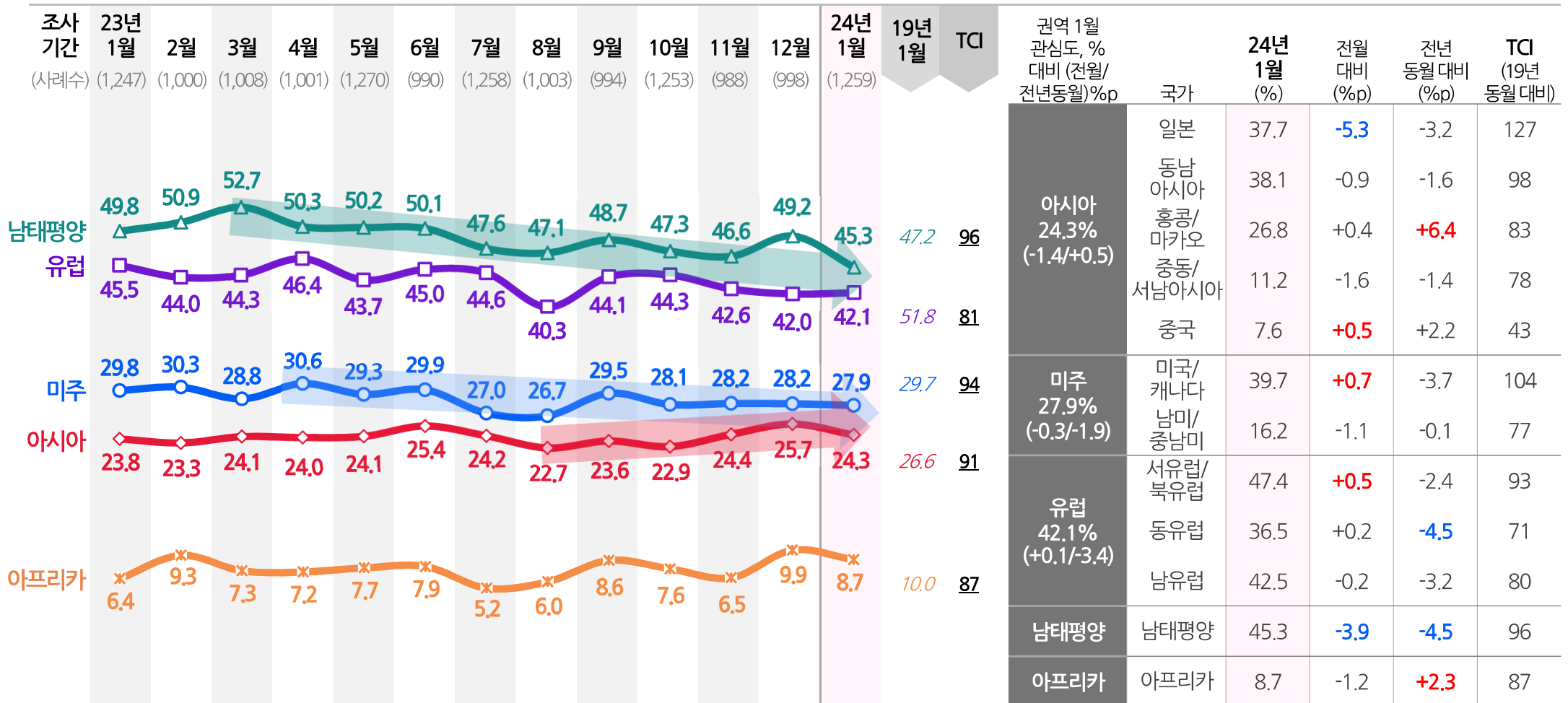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남태평양(45.3%)', '유럽(42.1%)', '미주(27.9%)' 순임. 실제 여행 가능성 보다는 희망사항 성격이 강함.
- '23년 3·4월 이후 '남태평양', '유럽', '미주'는 감소세를, 아시아는 '23년 8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임.
- TCI는 모든 권역에서 100 이하로 코로나 이전 동월보다 낮으며, '유럽'이 81로 가장 낮음.
- 국가별 TCI는 일본(127)과 미국/캐나다(104)를 제외하고는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함.

[단위 : Top2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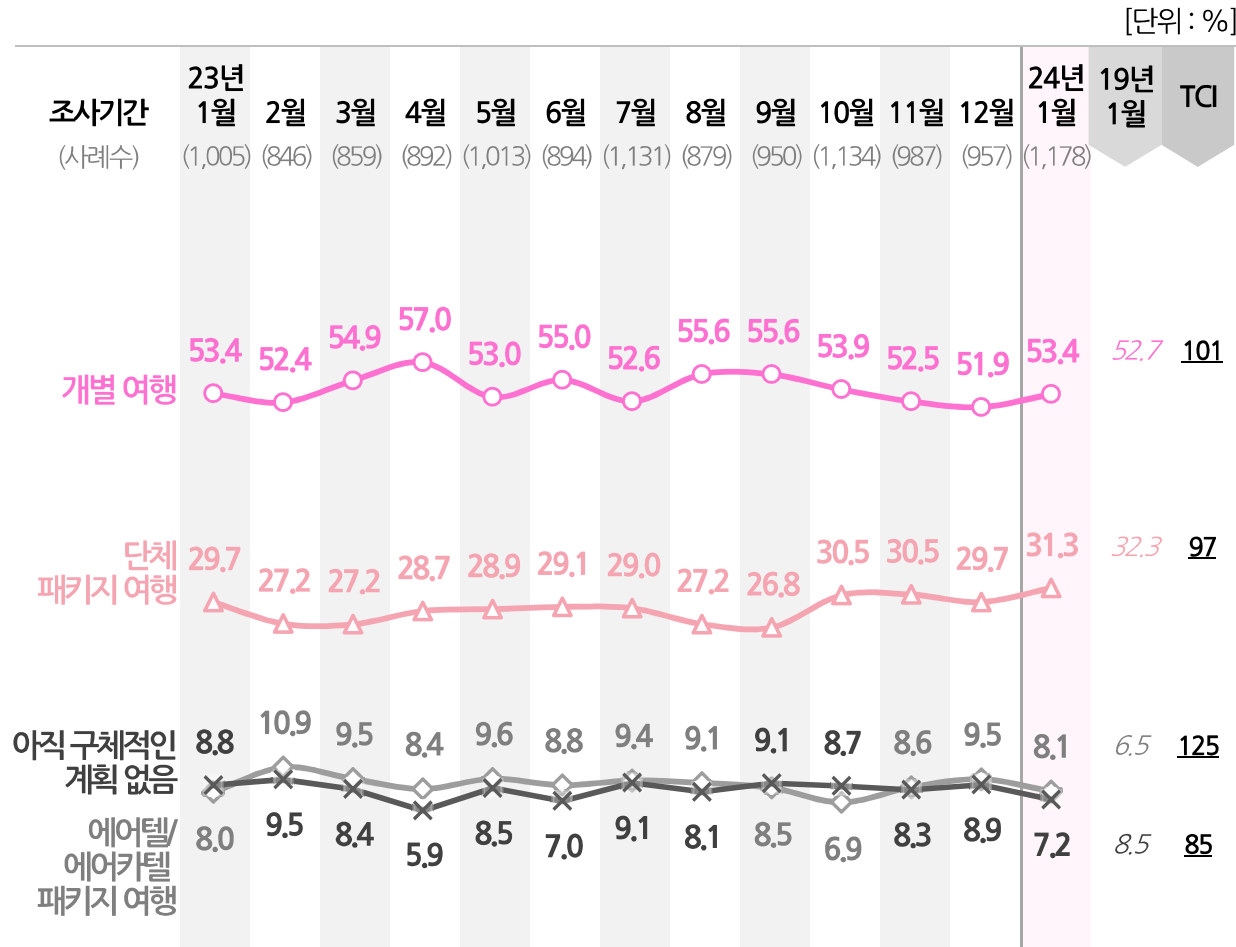


SQ3-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5점 척도)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지역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선호 해외여행 형태 (향후 6개월)

- 선호하는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53.4%)', '단체 패키지(31.3%)' 순임.
- '개별여행'은 △아시아에서,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럽,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은 △남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음.



▶ 여행지역별 선호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1,178)	(893)	(69)	(115)	(77)	(9)
개별 여행	53.4	<u>55.0</u> ▲	63.8	39.9▽	52.0	33.1
단체 패키지 여행	31.3	29.3▽	24.6	<u>50.5</u> ▲	24.6	44.7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8.1	7.9	7.2	3.5	<u>19.5</u> ▲	11.1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	7.2	7.7	4.3	6.1	3.9	11.0

B8. 'OO' 여행은 어떤 형태로 갈 생각이신가요?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참고 자료



[참고] 코로나와 여행 환경 이슈

[참고] 코로나와 여행 환경 변화

*㉠ 코로나19 관련 이슈, ㉡ 여행 관련 이슈 38/40

2020년	01월	㉠ 중국(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 발병(2019.12) 이후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20.01)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02월	㉠ 국내 집단 감염 발생 및 대규모 유행 등으로 전국 확산 ㉡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국외 유입 및 확산 방지 목적 국내 입국 내외국인 검역 시행 절차) 시행 ㉡ 일부 국가(이스라엘, 요르단 등) 한국인 입국금지 실시
	03월	㉠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2020.03 ~ 2022.04, 상황별/단계적 실시) ㉡ 해외 대부분 국가·지역 한국발 입국금지
	12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발효) ㉡ 5개 항공사 국제선 운항중단(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2021년	02월	㉠ 국내 백신 접종 시작
	11월	㉠ 위드코로나(방역 완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2월	㉠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 발생 및 확진자 급증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사적 모임 제한 4명으로 축소)
2022년	01월	㉡ 트래블버블(코로나19 감염 안전 평가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국가 확대
	03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확대) ㉡ 해외입국 자가격리 의무 면제
	04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05월	㉠ 해외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10월	㉡ 국내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 제한 해제
2023년	03월	㉡ 정부, 내수활성화대책 100만명에 휴가비 600억 지원 발표
	05월	㉠ 정부, 코로나 엔데믹 선언 ; 6월부터 방역 규제 및 격리 의무 해제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격리 5일 권고 전환)
	08월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09월	㉡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 시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10월	㉡ 여행이 있는 주말 (10.30~12.03) ㉡ 외교부,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월	㉠ WHO, 코로나 변이 'JN.1' 관심 변이로 지정
2024년	01월	㉠ 정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2024년 1월

1주	01. 01 ~ 01. 07	신정(2024년 1월 1일)
		정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2주	01. 08 ~ 01. 14	한국은행,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
		2024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막 (1.11~2.29)
3주	01. 15 ~ 01. 2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4주		전국, 북극발 한파
	01. 22 ~ 01. 28	강원 눈 축제 개막 (대관령 눈꽃축제, 태백산 눈축제 등)
		도쿄 인근 4.8 지진 발생
5주	01. 29 ~ 02. 04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1 시작~소진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 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주시, 여주시, 성주군' 선정

2023년 12월

1주	12. 04 ~ 12. 10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
		휘발유·경유, 9주 연속 하락
2주	12. 11 ~ 12. 17	2023 부산국제아트페어(BIAF 2023), 해운대 벅스코에서 개막(12.07~12.11)
		서울 윈터페스타 개막 (서울라이트 광화문, 서울 빛초롱 축제, 광화문 광장마켓 등 23.12.15.~24.01.21.)
3주	12. 18 ~ 12. 24	북극발 한파
		WHO, 코로나 변이 'JN.1' 관심 변이로 지정
4주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결항·지연 속출
	12. 25 ~ 12. 31	크리스마스(12월 25일)
		강원도 평창송어축제 개막(23.12.29.~24.01.28.)
		인도네시아 발리해 인근 규모 6.3 지진 발생

컨슈머인사이트 여행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여행/문화/스포츠 관련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issue

Thank You